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2007학년도

# 사주의 오행분포가 성격형성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 기 승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철학(명리)교육전공

손 연 숙

사주의 오행분포가 성격형성에  
미치는 영향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7월

국제 문화대학원대학교

철학(명리)교육전공

손 연 숙

# 손연숙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주심위원 \_\_\_\_\_인

부심위원 \_\_\_\_\_인

부심위원 \_\_\_\_\_인

2008년 7월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 감사의 글

명리학과의 인연이 사뭇 제 인생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는가 생각해 보면 많은 감동과 가슴이 따뜻해지는 많은 사람들을 선물로 준 귀한 인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명리학을 진정한 학문이요 삶의 지침이 되는 철학으로 지도해 주시고 본 논문이 완성되도록 세심한 가르침을 주신 김기승 지도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정적이신 모습과 명리학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심사를 맡아 주신 오기선 교수님 그리고 정찬남 교수님의 섬세하셔서도 방향성있게 지도해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입학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보다 깊은 명리의 세계를 깨우치고자 함께했던 3기 동기생 여러분의 끈끈한 학문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졸업 후에도 지속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언제나 저의 건강을 걱정해주고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랑하는 가족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2008년 7월

손 연 숙

사랑하는 나의 남편 최방열씨와  
큰딸 예나와 작은딸 세은에게 고마운 마음을...

# 목 차

표목차 .....	i
그림목차 .....	iii
국문초록 .....	v

## I. 서 론 ..... 1

A. 문제의 제기 .....	1
B.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
C. 용어의 정의 .....	4
D. 연구의 제한점 .....	6

## II. 이론적 배경 ..... 7

A. 사주분석과 오행 .....	7
1. 오행 개념의 형성 .....	7
2. 사주와 오행 .....	11
B. 성격이론의 연구 .....	15
1. 성격이론의 주요문제 .....	15
2. 성격이론의 관점 .....	16
C. 사주의 오행과 성격발현 .....	20
D. 선행연구 .....	21
1. 융 이론과 사주의 성격연구 .....	21

2. 편중된 심성과 성격연구 .....	23
-----------------------	----

### III. 연구의 방법 및 절차 ..... 26

A. 연구모형 .....	26
B. 연구가설 및 판별기준 .....	27
1. 연구가설 .....	27
2. 판별기준 .....	29
C. 연구대상 .....	30
D. 조사도구 .....	30
1. 연구의 절차 .....	30
2. 설문지 문항 분석 .....	31
3. 자료의 처리 .....	32

### IV. 연구결과의 분석 및 해석 ..... 33

A. 표본인구의 통계적 특성 .....	33
1. 응답자 사주에 관한 일반적 통계 .....	36
2. 응답자 설문에 관한 통계 .....	38
B. 연구의 결과 .....	44
1. 가설 I-강한 오행과 성격발현의 관계 .....	45
2. 가설 II-부재 오행과 성격발현의 관계 .....	52
C. 결과의 해석 .....	60

1. 가설 I -강한 오행과 성격발현의 관계 .....	60
2. 가설 II-부재 오행과 성격발현의 관계 .....	62
 <b>V. 결 론</b> .....	<b>65</b>
A. 요약 및 결론 .....	65
B. 제언 .....	67
 참고문헌 .....	68
ABSTRACT .....	70
부   록 .....	74



## 표 목 차

<표 II-1> 편중된 십성과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와의 관계 .....	15
<표 II-2> 성격이론에서의 주요 문제 .....	16
<표 II-3> 성격연구의 역사 .....	19
<표 II-4> 부재 오행에 의해 발현되는 성격적 특징 .....	20
<표 II-5> 오행에 의해 발현되는 성격적 특징 .....	21
<표 II-6> 정국용(2003) 논문의 가설검증의 결과 .....	23
<표 II-7> 주요 선행연구 .....	25
<표 III-1> 설문지 문항구성 .....	31
<표 IV-1> 응답자 사주의 일간별 분석 .....	36
<표 IV-2> 사주분석내용과 설문결과와의 오행별 빈도(강한오행) ...	40
<표 IV-3> 사주분석내용과 설문결과의 비교(강한오행) .....	40
<표 IV-4> 사주분석내용과 설문결과와의 오행별 빈도(부재오행) ...	41
<표 IV-5> 사주분석내용과 설문결과의 비교(부재오행) .....	41
<표 IV-6> 사주의 강한 木오행에 의한 성격발현 분포 .....	47
<표 IV-7> 사주의 강한 火오행에 의한 성격발현 분포 .....	48
<표 IV-8> 사주의 강한 土오행에 의한 성격발현 분포 .....	49
<표 IV-9> 사주의 강한 金오행에 의한 성격발현 분포 .....	51
<표 IV-10> 사주의 강한 水오행에 의한 성격발현 분포 .....	52
<표 IV-11> 사주의 부재된 木오행에 의한 성격발현 분포 .....	54

<표 IV-12> 사주의 부재된 火오행에 의한 성격발현 분포 .....	55
<표 IV-13> 사주의 부재된 土오행에 의한 성격발현 분포 .....	57
<표 IV-14> 사주의 부재된 金오행에 의한 성격발현 분포 .....	58
<표 IV-15> 사주의 부재된 水오행에 의한 성격발현 분포 .....	59
<표 IV-16> [가설 I] 의 검증 결과 .....	62
<표 IV-17> [가설 II] 의 검증 결과 .....	64

## 그 립 목 차

<그림 II-1> 오행론의 발전 .....	8
<그림 II-2> 천간의 음양오행 .....	12
<그림 II-3> 지지의 음양오행 .....	13
<그림 II-4> 일간과 오행의 관계 .....	14
<그림 II-5> 일간에 따른 십성의 변화 .....	14
 <그림 III-1> 연구의 모형 .....	26
 <그림 IV-1> 응답자 사주의 성별 통계 .....	33
<그림 IV-2> 응답자 거주지별 통계 .....	34
<그림 IV-3> 응답자 연령대별 통계 .....	35
<그림 IV-4> 응답자 사주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오행 .....	37
<그림 IV-5> 응답자 사주에서 없거나 가장 적은 분포를 보이는 오행 ..	38
<그림 IV-6> 사주분석 내용과 설문결과와의 비교(강한오행) .....	39
<그림 IV-7> 사주분석 내용과 설문결과와의 비교(부재오행) .....	41
<그림 IV-8> 음양오행에 대한 인식도 조사 .....	42
<그림 IV-9> 성격형성에 대한 인식도 조사 .....	43
<그림 IV-10> 사주의 오행분포와 성격발현 관계 .....	45
<그림 IV-11> 사주원국의 木오행과 성격발현 분포도 .....	46
<그림 IV-12> 사주원국의 火오행과 성격발현 분포도 .....	47
<그림 IV-13> 사주원국의 土오행과 성격발현 분포도 .....	49

<그림 IV-14> 사주원국의 金오행과 성격발현 분포도 .....	50
<그림 IV-15> 사주원국의 水오행과 성격발현 분포도 .....	51
<그림 IV-16> 부재오행이 성격발현에 미치는 영향 .....	53
<그림 IV-17> 사주원국의 부재된 木오행에 의한 성격발현 분포도 .....	54
<그림 IV-18> 사주원국의 부재된 火오행에 의한 성격발현 분포도 .....	55
<그림 IV-19> 사주원국의 부재된 土오행에 의한 성격발현 분포도 .....	56
<그림 IV-20> 사주원국의 부재된 金오행에 의한 성격발현 분포도 .....	57
<그림 IV-21> 사주원국의 부재된 水오행에 의한 성격발현 분포도 .....	59

## 국문초록

성격(personality)이란 한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고유한 방식을 의미하며, 사회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맺음을 하는 가운데 가장 뚜렷이 드러난다. 본 연구는 미래사회가 심리학자 ‘대니얼 골맨’(Daniel Goleman)의 새로운 이론인 ‘SQ감성지능’(Social Intelligence)이 발달한 사람이 주도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면서 ‘사주의 오행분포가 성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오행에 의한 성격발현을 검증해 보았다.

본 연구의 장점은 현재 많은 자기보고식에 의한 성격검사가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과가 달라지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점에 주목하면서, 태어난 출생연월시를 통하여 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명리학 이론을 활용하였다. 특히 동양철학과 명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이론인 오행과 성격발현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2개의 가설을 세우고 다음과 같이 검증해 보았다.

첫 째, [가설 I]은 ‘사주의 오행분포는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로 사주원국에서 강하게 분포된 오행이 한 사람의 성격발현에도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설문 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해 보았다.

둘 째, [가설 II]는 ‘부재오행은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로 사주원국에서 부재되거나 가장 적은 분포를 보이는 오행이 한 사람이 성격발현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설문 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해 보았다.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도, 충청도에 거주하는 20대에서 50대까지의 성인 324명이었으며, 설문조사 기간은 2008. 03 - 4월까지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25개의 오행에 대한 문항과 개인정보에 관한 문항 2개 그리고 명리학과 성격에 관련된 일반적인 인식도 통계를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오행에 관한 문항은 木火土金水 각 오행의 성격발현에 의한 특성 3가지와 부재된 경우에 발현되는 성격특성 2가지로 구성되었다.

설문 문항을 분석한 결과 위의 2가지 가설은 모두 채택 되었으며, 사주명식의 오행을 분석하여 강하게 분포되거나 부재된 오행으로도 성격을 예측하

고 분석할 수 있다는 내릴 수 있었다.

즉, 사주에서 강하게 분포된 木오행은 木오행에 해당되는 성격적인 특징이 발현되는 분포가 54.72%였으며 火오행은 61.97%, 土오행은 78.18%, 金오행은 68.52% 그리고 水오행은 44.44%로 각기 분포도는 달라도 각 오행별로 가장 높은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부재된 오행에 의한 성격발현으로 사주에서 木오행이 부재된 경우, 부재된 木오행에 의한 성격발현의 분포는 57.89%였으며 火오행은 68.57%, 土오행은 57.58%, 金오행은 85.19%, 水오행은 84.39%로 각기 분포도는 달라도 각 부재오행별로 가장 높은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사주명식에서 강하게 분포된 오행은 한 사람의 성격적인 특징을 구성하는 해당오행에 의한 성격을 강하게 발현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사주명식에서 부재오행은 한 사람의 성격적인 특징을 구성하는 해당오행의 부재에 의한 성격을 강하게 발현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주의 오행분포는 한 사람의 성격발현에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사주명식의 분석은 성격분석과 예측을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미래 사회가 바라는 시민은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을 넘어 바람직한 관계맺음과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사주명리학 이론을 활용하여 미래사회에 공헌하고 적응하기 위한 기초적인 단계로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한 연구이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사주명식의 분석을 통하여 성격 이외에도 적성, 지능, 행동양식 등에 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I. 서론

## A. 문제의 제기

삶에 대한 지표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은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연구와 문명의 발전에 힘입어 현재 놀랄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의 지능이나 적성, 성격 그리고 자기 정체감, 우울성 경향, 학습유형에 대한 검사 등이 연구되고 있으며 의학적, 심리학적 분야에서의 공동연구로 인간의 뇌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에 의한 정보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본 연구는 동양철학의 기본적인 개념인 오행이론을 기초로 하여 사주명식상에서 오행의 분포가 성격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성격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접근 방법이 있으나 木火土金水는 뚜렷한 기질적 차이를 보이는 개념으로 명리학적 해석에서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한의학에서는 체질 형성에도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는 기초이론이다.

그러므로 오행에 의한 성격형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설문지법으로 새롭게 구성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며, 사주에서 오행분포가 한 사람의 성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둔다.

그렇다면 성격이란 무엇인가? 성격의 정의는 성격을 파악하는 학문적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원적으로 보면 탈 혹은 가면의 뜻을 함축한 라틴어 페르조나(persona)를 내포한 말로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개인의 모습 및 특성을 나타낸다.(노안영, 2003)

성격을 단 한가지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그 중 Alport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격은 개인의 특유한 행동과 사고를 결정하는 심리 신체적 체계인 개인 내의 역동적 조직이다.’(Personality is the dynamic organization within the individual of those psychophysical system that determine his characteristic behavior and thought.) 이와 같이 성격의 정의에는 학자가 성격을 연구하는데 설정하는 가정에 따라 달라진다.

오늘날 성격심리학의 발달은 프로이트의 정신역동적 관점에서 인본주의적 관점과 인지적 관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성격이론은 오늘날 5가지 정도의 관점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 무의식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프로이트의 성격이론은 정신역동적 관점을 가진 이론으로 새로운 접근방식들이 탄생해도 ‘정신분석’이라는 접근법은 학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이론이다. 성격이론가들은 성격을 특징짓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학습 요인, 부모 요인, 발달 요인, 의식 요인, 무의식 요인이라는 일곱 가지 요인을 뽑았다.(노안영, 2003)

본 연구에서는 성격 연구에 대한 우주론적이고 생명생성의 기본원리에서 시작된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고자 한다. 태초에 무에서 시작된 우주가 음과 양이라는 우주탄생의 순간 다시 이 음양이 분화하여 오행을 이루고 모든 만물을 이루는 기본 원리가 되었다. 그러므로 음양과 오행은 동양철학의 근본적인 시작을 이루는 말로, 사주는 이 음양과 오행이 이루는 관계를 해석하여 한 사람의 운과 명을 논하는 학문이다. 이러한 분석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한 사람의 성격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사주명리학에서는 바로 이 음양오행에서 시작된 천간지지의 8글자가 이루는 사주명식을 분석하여 한 사람의 성격을 밝혀내고 있다. 木火土金水 오행에 의해 발현되는 성격에 대한 내용은 이론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사주에서 성격을 형성하는 체계는 우선 일간이며, 월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격과 함께 십성의 체계 및 편중된 오행이 된다. 또, 흥미를 유발하는 체계는 성격체계와 함께 일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오행이며, 이 오행의 영향이



강할 때다.(김배성, 2006)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자는, 발굴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고고학자처럼, 가장 깊숙이 감추어진 가장 값진 보물을 찾을 때까지 환자의 정신을 한층, 한층 벗겨내야 한다.’(Sigmund Freud)라고 하였고, 한 사람을 완전하게 알려는 노력은 이러한 본질적인 추구라는 학문적인 자세를 요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양철학의 근본 원리인 오행에서 비롯된 한 사람의 성격발현을 알아보는 것은 명리학을 통한 인간이해의 가장 깊숙이 감추어진 값진 보물을 찾는 노력이라는 의의가 있다.

## B.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木火土金水の 오행은 각각 고유한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십성에 의한 성격발현 이전에 근본적인 성격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십성은 사주의 여덟 개의 글자가 일간과 이루는 관계를 음양에 따라 그리고 오행이 생극하는 관계에 따라 규명한 것으로, 사주오행을 파악하는 것이 더 근원적인 성격발현에 대한 접근이다.

후천적인 요인이나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학습과정에서 받은 영향 등 많은 요소들이 한 사람의 성격형성을 이루고 있지만 사주 오행으로 접근해보는 방법은 우주를 이루고 있는 일부분으로서의 인간이요, 한 사람이라는 객체 이전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기질들의 보편성에서 시작되는 연구이다.

본 연구는 사주에서 목화토금수의 오행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여 순위를 매기고 한 사람의 성격발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3장에서는 사주의 오행분포와 부재오행에 대한 연구가설과 판별기준을 설정하는 연구모형을 설계한다.

둘째, 4장에서는 사주의 오행분포와 부재오행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내용을 통계 내어 분석하고 사주명식과 비교하여 한 사람의 성격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해석한다.

셋째,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과정과 결론을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점과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다.

## C. 용어의 정의

### 1. 성격[性格, personality]

성격에 대한 정의는 이론에 따라 그리고 학자마다 다소 다른 견해를 가지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성격심리학에서 말하는 성격에 대한 정의보다 보편적인 개념으로 일컬어지는 성격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격 [性格, personality] 특정한 개인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독특한 방식이다. 성격은 사람의 기분·태도·의견을 포괄하며,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에서 가장 뚜렷이 드러난다. 성격은 각 개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선천적·후천적 행동특성으로서, 그 사람의 주위환경과 사회집단의 관계 속에서 관찰할 수 있다.(백과사전)

성격 [性格, 명사]

1.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나 품성.
2. 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이나 본성.
3. <심리>환경에 대하여 특정한 행동 형태를 나타내고,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

시킨 개인의 독특한 심리적 체계. 각 개인이 가진 남과 다른 자기만의 행동 양식으로, 선천적인 기질과 후천적인 영향에 의하여 형성된다.(국어사전)

## 2. 성격발현

오행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속성과 기질을 가지고 있다.

木 - 성장, 약진, 발육을 의미한다.

火 - 만물을 정화, 소화시키는 기운이다.

土 - 모든 것을 중용으로 감싸며 보호해주는 기운이다.

金 - 사물의 형태를 바꾸고 변형시켜 따르게 하는 기운이다.

水 - 끊임없이 흐르고 굽이치며 변화·변동하는 기운이다.(김배성, 2003)

그러므로 십천간과 십이지지의 기본적인 속성이 음양과 오행으로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오행은 한 사람의 성격을 강력하게 특징지워 발현시키는 성격발현의 기본 요소가 될 수 있다.

## 2. 부재오행

사주에서 어느 한 오행이 전무한 상황에서는 균형의 실조로서 정신적 측면 또는 전반적으로 수요공급이 깨어지는 구조로 침체에 이르게 된다.(김배성, 2004)

이와 같이 사주에 없는 오행을 부재오행이라 정의하며 만물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요소로서 오행의 개념을 파악할 때, 한 오행의 부재는 한 사람의 성격형성과 발현에 있어서 불균형으로 인한 강력한 특징을 이루게 된다.

## D. 연구의 제한점

1. 본 연구는 성격형성에 대한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지 않고 오행에 대한 연구에 국한했다는 제한을 가진다.
2. 본 연구는 서울, 경기도, 충청도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3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통계를 내었다는 제한을 가진다.

## II. 이론적 배경

### A. 사주분석과 오행

#### 1. 오행 개념의 형성

사주명리학은 음양오행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학문적인 정립이 불가능하다. 그 중에서 음양이란 우주와 생명탄생의 시작을 의미하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으나 오행이란 이 음양에서 파생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질에 대한 의미를 담은 이론으로서 이러한 오행에 대한 탐구는 인간 이해를 위한 가장 깊고 심오한 접근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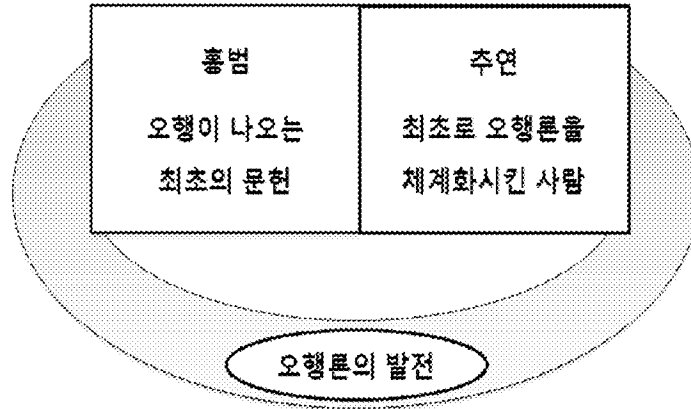
##### a. 동양철학의 발전과 오행론

오행이란 무극의 상태에서 一氣가 되고 또 이것은 太極으로 통일체가 되어 다시 太易, 太初, 太始, 太素의 네 단계를 거쳐 태극으로 발전되었고 음과 양이라는 두 가지 기운이 갈라지게 되었는데 그 음양은 다시 각각 분합작용을 일으킴으로써 다섯 개의 새로운 성질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것을 五行이라고 하는 것이다.(한동석, 1996)

「홍범」은 殷나라의 箕子가 周의 武王에게 치국의 도에 대하여 간한 글로 알려져 있으며, 명확하게 오행이라는 단어와 水·火·木·金·土라는 오행의 내용이 함께 나오는 최초의 문헌이라 할 수 있다.(박왕용, 1997)

홍범이란 전통적인 설법에 따르면 주나라의 무왕이 은나라를 정벌한 후에 은나라의 귀족인 기자에게 국가를 다스리는 대법에 대해 물었는데, 기자가 한

편의 글을 지어 바쳤는데 그 제목이 ‘홍범’이다. 근대 학자들의 고증에 따르면 이 글은 전국시대 음양오행가의 저작이라고도 한다.



< 그림 II-1 > 오행론의 발전

오행설은 음양이론과 마찬가지로 고대 중국인들의 세계관과 자연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중국 고대문헌에서 최초로 오행설에 대한 언급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상서 尙書〉의 홍범(洪範)으로서, 홍범구주(洪範九疇)의 첫번째가 바로 오행이며 그 순서는 수·화·목·금·토로 되어 있다. 이러한 5가지 요소는 이른바 민용오재(民用五財)라는 것으로, 고대인의 생활에 불가결했던 5가지 재료를 가리키는 것이며, 그 순서도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물과 불에서 시작해서 생활자재인 나무와 쇠붙이를 거쳐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흙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순서는 〈예기 禮記〉의 월령(月令)에 나타난 목·화·토·금·수의 오행상생(五行相生)의 순서나, 제(齊)나라 추연(鄒衍)이 정한 토·목·금·화·수의 오행상승(五行相勝)의 순서로 변모된다. 또한 이 홍범은 음양오행설만이 아니고 그 시대의 국가관이고 세계관

인간관이 포함된 내용이었다.

전국시대 제나라의 주연은 처음으로 오행설을 체계화시킨 사람으로서, 그는 중국 역대왕조의 흥망성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오행상승의 순서를 정립시켰으며, 오행의 덕(德)을 제나라에 부여했다. 즉, "목은 토를 이기고, 금은 목을 이기며, 화는 금을 이기고, 수는 화를 이기며, 토는 수를 이긴다."는 것을, 우(虞)는 토덕을, 하(夏)는 목덕을, 은(殷)은 금덕을, 주(周)는 화덕을 입었다고 해석하고, 나머지 수덕을 제나라에 결부시킨 것이다. 한편 오행상생의 순서는 한(漢)나라초에 복생(伏生)이 체계화시켜 그를 통해 왕조의 변화나 만물의 운동 과정을 설명했는데, 한대에 이르러서는 음양설과 결합된 음양오행설이 크게 유행하여 오행을 우주조화의 측면에서 해석하고, 그것을 일상적인 인사(人事)에 적용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목은 육성(育成)의 덕을 맡는다 하여 동쪽에 위치하고 계절은 봄이며, 화는 변화의 덕으로서 방위는 남쪽이고 계절은 여름, 토는 생성(生成)의 덕으로 방위는 중앙에 4계절의 주(主)이며, 금은 형금(形禁)의 덕으로 방위는 서쪽이고 계절은 가을, 수는 임양(任養)의 덕으로 방위는 북쪽이고 계절은 겨울이라고 했다. 또한 오행의 관계에는 상생과 상극(相剋)의 관계가 있어 상생은 목생화·화생토·토생금·금생수·수생목이며, 순서는 목화토금수이다. 또 상극은 수극화·화극금·금극목·목극토·토극수이며, 순서는 수화금목토라고 했다. 이렇게 오행설은 선진(先秦)시대에 성립된 뒤 한대에 이르러 체계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시작했는데, 이 무렵에는 음양설 및 십간(十干)·십이지(十二支) 등과 결합되어 그 내용이 복잡하게 되었다.(백과 사전)

동증서가 저술한 『춘추번로』는 전통적인 儒家類로서 유교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당시 방만하게 유행하던 술법적 측면이 많이 배제되어 오행설과 함께 유행하던 잡술법을 타파하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소재학, 2005)

## b. 오행론과 현대과학

지금까지는 오행론의 직접적인 발전이 이루어진 동양철학적인 면에서 살펴 보았는데, 음양오행론이 우주만물의 기원에 대한 이론이라면 서양의 현대과학은 우주만물의 기원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오행설(五行說)은 만물을 조성하는 오종(五種)의 원기(元氣) 즉 木, 火, 土, 金, 水의 이치에 관한 것이다. 태고(太古) 天에 木星, 火星, 土星, 金星, 水星이라 칭하는 오성(五星)의 혹성이 있었다. 천체(天體)운행이 지구(地球)에 미치는 영향력은 강약(強弱)의 차이는 있으나 필히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결코 이(理)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구가 영향을 받는 것이라면 일개의 소우주(小宇宙)인 인간(人間)에게도 당연히 그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작금엔 서양의 점성가도 그 과정을 원점으로 하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다. 태양계를 중심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행성들이 있고 그들은 공전(空轉)과 자전(自轉)을 하며 별들마다의 기가 상대성을 이루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구와 가까워서 직접적으로 기를 미치는 행성은 木星, 火星, 土星, 金星, 水星 다섯 개의 행성이다. 그러므로 사주명리학은 천문학과도 연관성이 깊으며 초자연적인 기에 의한 천체운행의 법칙을 따라 인간지능이 인식하는 기호적 논리로 이해할 수 있다.(김배성, 2006)

그러므로 현대명리학은 오행설에 대한 기존의 이론을 배경으로 하여 이제부터는 천문학이라는 현대과학적인 면에서 실제적으로 연구하고 새로운 이론 성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세기의 과학자들은 ‘빅 뱅(big bang:우주 대 폭발)’이 일어나는 순간 우주의 모든 것이 생겨났고 또 이 순간 시간과 공간이 탄생되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공론이다. 금세기 최고의 석학 ‘스티븐 호킹’ 박사 또한 그의 저서 ‘시간의 역사’에서 위와 같이 최초의 대폭발로 우주가 시작되었고 이와 함께 시간도



시작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므로 음양은 우주가 분화하면서 탄생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우주를 탄생시키기 위한 두 기(가스와 먼지)의 축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인류가 출현하기 이전에 있었던 수수께끼 같은 일이니 여러 학설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즉, 우주의 탄생은 곧 음(어둠)과 양(태양)이란 시간과 공간의 탄생이며 두 요소는 알의 흰자와 노른자처럼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핵과 원소가 되었고 그 두 핵의 분화과정에서 파생된 물질들은 우주에 흩어진 모든 별들이라고 본다. 그중에 지구와 근접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다섯 개의 행성들은 각기 목·화·토·금·수라는 오기(五氣)를 지구에게 미치게 되었으니 지구 내에 오행의 기(氣)와 질(質)로 이루어진 모든 만물을 성장시킨 요소이다. 이에 인류라는 생명체도 존재할 수 있었으며 음(어둠)과 양(태양)의 적당한 영향력(온도)과 함께 오행성의 기운은 인간이 지구상의 생명체중 가장 우수하게 진화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고 본다.(김배성, 2006)

지금까지 오행론의 기원과 발전을 알아보았다. 오행론은 동양철학과 함께 발전해 온 이론이지만 현대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각도에서의 접근을 해 보고자 할 때에 근본적으로는 우주만물의 기원을 설명해 주는 천문학적 연구로도 규명이 가능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주의 모든 만물 중에서 인간의 성격에도 강력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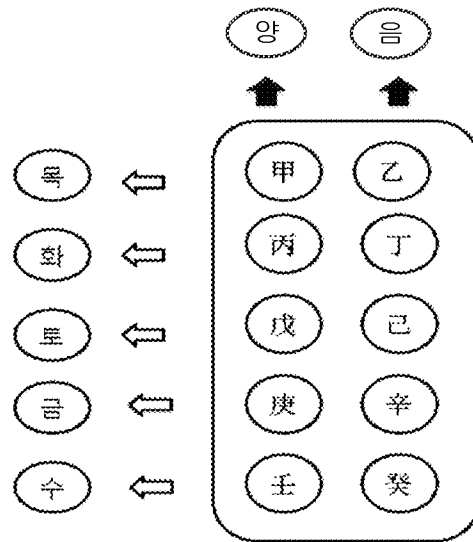
## 2. 사주와 오행

### a. 사주명식과 오행

사주명식은 누구나 8개의 글자로 이루어진다. 천간과 지지의 22개의 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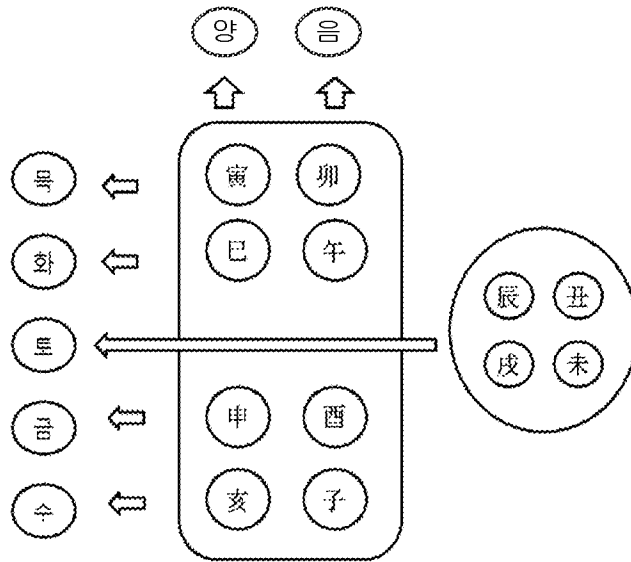
의 조합으로 이루어지지만 근본적으로는 음양이라는 (+), (-) 의 개념과 오  
행이라는 木火土金水의 개념이 조합되어 파생된 것이다.

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의 8개로 구성된 천간도 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  
12개로 구성된 지지도 모두 음양과 오행의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다.



< 그림 II-2 > 천간의 음양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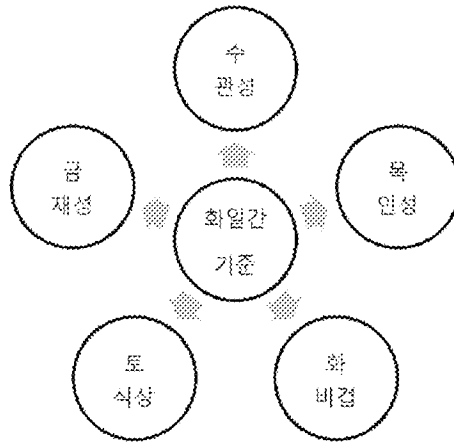
위의 그림은 천간 8개의 글자를 음양과 오행으로 파악해 본 것으로 음양  
의 개념을 배제시킨다면 결국 천간도 오행의 개념으로 귀결된다. 아울러 지  
지 또한 음양오행의 개념으로 파악해 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으며 12개의 지  
지 또한 오행으로 분류하여 파악될 수 있다.



< 그림 II-3 > 지지의 음양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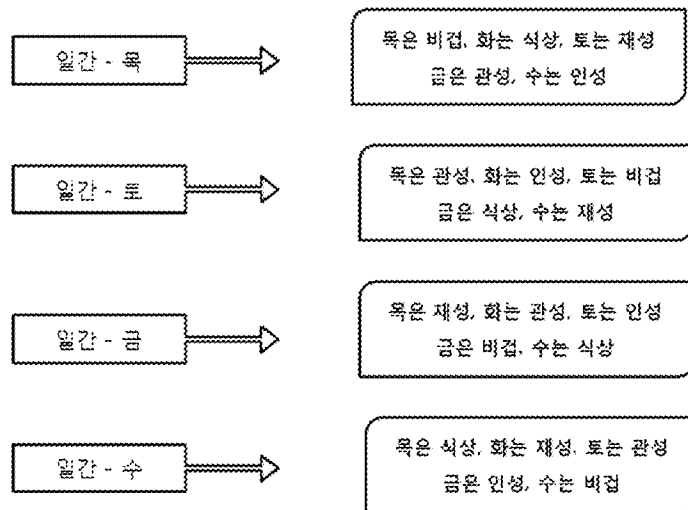
## b. 일간과 오행

사주명식은 이러한 천간지지의 오행으로 분류되어지는 개념만이 아니다. 사주는 이러한 오행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비견, 겁재, 정인, 편인, 식신, 상관, 편재, 정재, 정관, 편관이라는 십성을 이루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는 바로 오행의 생하고 극하는 생극작용에서 발생한 관계이다. 또한 이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일간이 있어서 같은 오행이라도 일간이 다른 사주명식에서는 서로 상이한 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일간의 오행에 따른 오행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관계에서 음양의 개념을 제외시킨다면 비겁, 인성, 식상, 재성, 관성이라는 5개의 개념으로 살펴볼 수 있다.



< 그림 II-4 > 일간과 오행의 관계

위의 그림은 일간이 화인 경우에 대하여 각 오행들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며 오행이 달라지면 그 관계 또한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 그림 II-5 > 일간에 따른 심성의 변화

또한 이러한 각 개념들은 일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심리적 욕구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오행이라는 범위에서 연구를 실시한 것이므로 십성에 의한 성격적 발현에 대한 내용은 배제시키기로 하였다.

<표 II-1> 편중된 십성과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와의 관계

편중된 십성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와의 관계
인 성	생리적 욕구에 의한 성격이 강하게 나타남
관 성	안전의 욕구에 의한 성격이 강하게 나타남
식 상	소속과 애정의 욕구에 의한 성격이 강하게 나타남
비 겁	자존심 충족의 욕구에 의한 성격이 강하게 나타남
재 성	자아실현의 욕구에 의한 성격이 강하게 나타남

출처 : 김종만(2005)

## B. 성격이론의 연구

앞에서는 사주명식에서 오행의 기원과 개념 그리고 사주명식에서 오행이 기본적인 성격발현의 요소로서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오행의 성격발현에 대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성격연구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 1. 성격이론의 주요문제

본 연구는 성격에 대한 사주명리학적인 접근을 시도한 논문으로 성격에 대한 이론적 접근 이전에 다루어야 할 주요문제를 지적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2> 성격이론에서의 주요 문제

항목	성격이론에서의 주요 문제
주제 파악	성격에 대한 관점은 무엇인가?
대상 파악	인간에 대한 관점은 무엇인가?
외적 요인	인간의 성격은 일관적인가 아니면 외적에 요인에 의해 변하는가?
내적 요인	성격이론에 대한 구체적 이해와 성격이론과의 비교와 평가는 어떠한가?

출처 : 노안영 외1(2003)

## 2. 성격이론의 관점

첫 번째, 성격에 대한 관점은 성격이론을 파악하는 5가지의 성격심리학으로서의 관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아래의 내용은 『성격심리학』(노안영 외1, 2003)에서 주요 내용만을 간추린 것이다.

첫 째, ‘정신역동적 관점’으로는 1)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 접근 및 신정신분석적 접근에 속하는 이론가들을 포괄하여 다루었다. 이 관점은 정신의 에너지, 인간행동이 결정되는 상황적 맥락, 정신과 환경의 상호작용 등에 따라 성격이 역동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둘 째, ‘성향적 관점’에는 올포트, 케텔 등의 특질이론과 아이젠크의 생물학적 입장과 5요인 모델을 포함하여 다루었다. 이 관점은 인간의 성격을 나타내는 비교적 안정적인 특질이 있으며 이러한 특질은 문화에 따라 공통적인 특질 및 사람들을 구별해주는 독특한 특질이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

1)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 : 오스트리아의 신경과 의사. 정신분석의 창시자. 히스테리환자를 관찰하고 최면술을 행하며, 인간의 마음에는 무의식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저서-(꿈의 해석, 1900)

셋째, ‘행동 및 사회학습 관점’에는 스키너의 행동주의, 반두라 및 로터의 사회학습이론을 포함하였다. 이 관점은 정신내부보다는 주로 관찰할 수 있는 행동 및 행동변화에 초점을 둔 행동주의적 가정에 근거한다. 하지만 현대 심리학의 추세에 따라 반두라와 로터는 학습에서 인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넷째, ‘인본주의적 관점’에는 2)매슬로우의 자아실현이론, 로저스의 인간중심 접근, 실존주의적 이론을 포함하였다. 이 관점은 철학적 입장으로 현상학과 실존주의를 바탕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다섯째, ‘인지적 관점’에는 켈리의 개인 구성개념 이론과 엘리스와 벡의 성격에 대한 인지적 접근을 포함하였다. 이 관점은 무엇보다 인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개개인이 갖는 인지에 따라 정서 및 행동이 영향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는 성격연구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한 연구를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성격연구에 대한 대상이 되는 인간에 대한 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보다는 인간의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학자들의 입장은 프로이트나 스키너와 같은 결정론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에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매슬로우나 로저스와 같은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학자들도 있다. 또한 이러한 견지 외에 인간성을 결정하는 데에는 유전과 환경이라는 논쟁도 오랜 역사를 지닌 논제이다. 아이젠크나 프로이트와 3)융이 유전적인 요인이 강하다는 입장에서 주장하는 학자들이며 스키너와

---

2) 매슬로우(Abraham Maslow, 1908-1970) : 미국의 심리학자로 보통 ‘매슬로의 인간 욕구 단계설’ 제안으로 유명하다. 매슬로우가 심리학에 기여한 제1의 공헌은 그가 자주 가장 높은 욕구로 맨 위층에 자아실현이 욕구를 갖는 피라미드로 표현했던 그의 ‘인간욕구단계설’이다. 피라미드의 맨 아래층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생리적 욕구들이다, 일단 이것들이 해결되면 개인은 차례대로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감을 위한 욕구, 존경의 욕구 마지막으로 자아실현이 욕구를 추구한다.

3) 융(Carl Jung, 1875-1961) : 스위스의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지크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영향을 받아 분석심리학의 기초를 세웠고 외향성·내향성, 원형, 집단무

로저스 그리고 로터와 같은 학자들은 후천적인 환경이라는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다.

본 연구는 인간의 성격형성에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을 하게 됨을 인정하면서 인간성의 형성에 오행이라는 근본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다소 결정론적이면서 유전적인 요소도 의미가 있다는 입장에서 연구를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연구는 오랜 역사를 지닌 연구 성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의식 등의 개념을 제시하고 발전시켰다. 그의 업적은 정신의학과 종교·문학관련 분야의 연구에 영향을 미쳤다.



<표 II-3> 성격연구의 역사

400 B.C.	히포크라테스가 체형(body types)과 성격 특징을 연관시킴
200 A.D.	갈렌이 체액에 대한 히포크라테스의 이론을 기질과 연관시킴
1800년 경	갈(Franz Gall)과 스퍼자임(Johann Spurzheim)이 골상학을 개발함
1884	갈튼(Francis Galton)이 단어연상과 행동 표본 기법이 포함된 성격 측정 방법을 발표함
1900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을 출간함
1905	융이 단어 연상 검사를 사용하여 정신의 복합적 측면을 탐지하고 분석하였음. 최초의 실용적 지능검사인 비네-시몬 검사가 출판됨
1920	로르사크의 잉크반점 검사가 출판됨, 왓슨과 레이너(Rayner)의 꼬마 알버트(Little Albert)의 흰쥐에 대한 조건화된 공포에 관한 연구가 발표됨
1925	크래츠머가 체격(Body build)과 성격 그리고 정신장애와의 관련성을 발표함
1935	머레이(Hennry A. Murray)와 모건(Christian Morgan)이 TAT검사를 개발함
1937	올포트가 ‘성격:심리적 해석’을 출판함
1942	셀톤과 스티븐스가 체격과 기질과의 관련성을 연구하여 발표함
1943	하싸웨이(Starke Hathaway)와 맥킨리(Fred Mckinley)가 MMPI를 출판함
1950	달라스와 밀러의 ‘성격과 심리치료’가 출판됨
1951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치료’가 출판됨
1952	미국정신의학회가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I’를 출판함
1954	매슬로우가 인본주의 관점을 도입함
1955	켈리의 ‘개인 구성개념 심리학(Psychology of Personal Constructs)’이 출판됨
1961	반두라(Albert Bandura)가 사회학습 이론에 대한 개념들을 발표하면서 ‘인지혁명’이 시작됨
1968	미첼이 ‘성격과 평가(Personality and Assessment)’를 출판함
1970-1990	성격 평가 절차 및 도구들을 설계하고 실시하고 채점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컴퓨터의 사용이 증가함
1975-1980	행동 평가 기법들에 대한 관심과 개발이 증대됨
1989	MMPI-II가 출판됨

출처 : 노안영 외1(2003)

지금까지 성격연구에 있어서 성격자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 그리고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인간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성격연구의 역사를 정리해 보았다. 이와 같은 성과를 볼 때에 인간성격에 대한 연구는 가치가 있는 연구이며 우주탄생 이후로 인간과 우주를 형성함과 동시에 보편적인 기질로서 작용하는 오행의 기질을 분석해보는 학문적 시도는 인간성격 연구에 중요한 한 성과를 이룰 것이다.

## C. 사주의 오행과 성격발현

사주오행에 의해 발현되는 성격적 특징은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며 아래 <표 II-4>, <표 II-5>의 내용은 『사주심리치료학』(김배성, 2004)의 내용을 간추려 재구성한 내용이다.

첫 째, 오행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현되는 성격적 특징

둘 째, 부재 오행에 의해 발현되는 성격적 특징

<표 II-4> 부재 오행에 의해 발현되는 성격적 특징

부재오행	성격적 특징
목	집중력이 부족하여 매우 산만한 경향이 있다. 사고력 부족이 원인이 되어 불안하고 대인관계에 두려움이 많다.
화	삶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다. 표현력 부족이 원인이 되어 인화력이 떨어진다.
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자주 집착한다.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
금	뭔가 결정을 할 때 아주 많이 망설이게 된다. 시작은 잘 하는데 뚜렷한 결과가 없는 경우가 잦다.
수	임기응변이 약하여 위기 대처 능력이 부족한 편이다. 정서가 메마르고 마음의 여유가 부족하다.

<표 II-5> 오 행에 의해 발현되는 성격적 특징

오 행	성격적 특징
목	항상 새로운 일을 생각하고 시작하기를 좋아한다. 다소 이기적이나 사람들을 이끌고 리드하기를 잘 한다.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하고 과시하려는 기질이 강하다.
화	문화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감성적인 면이 많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면과 체면을 중시한다. 애매모호한 것을 싫어하며 충동적일 때가 많다.
토	누구와도 무난하게 지내며 믿음직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모든 문제의 타협점을 찾아 잘 해결한다. 과거를 참고하여 일에 대한 판단을 하며 현실적인 결정을 한다.
금	분명한 기준으로 행동하므로 과감한 면이 있다. 냉정해 보이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의리가 있다. 자제력이 강하며 항상 뒷일을 생각하며 행동한다.
수	책임감이 강하고 변화에 대하여 적응을 잘 한다. 일을 기획하고 실천해 나가는 안목이 좋다. 철학에 관심이 많고 패기있는 행동보다는 안정을 더 추구한다.

또한 오행의 일반적인 특성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데 이와 같은 자료는 풍수나 오행 자체의 기질에 대한 연구 그리고 한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행을 통한 해석에 활용되는 자료이다.

## D. 선행연구

### 1. 용이론과 사주의 성격연구

사주명리 이론을 활용한 성격연구는 현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 『성격특성의 예측을 위한 사주명리학에 관한 연구』(정국용, 2003)

는 융의 성격이론인 외향성과 내향성에 대한 연구를 병행한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으며,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앞으로 사주명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연구방향에 대한 좋은 지침이 되어주고 있다.

다음은 연구결과이다.

첫째, 자기보고에 의한 성격특성과 사주에 의한 성격특성의 일치도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 보고식 성격 검사의 시간과 비용 그리고 왜곡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주명리학의 사주명식에 의한 성격특성 측정은 유용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사주에 의한 성격특성요인과 서양의 특성이론에 의한 성격특성 간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주명리학자의 성격특성을 개인의 일반적인 성격특성을 기술하는 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사주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재론적 성향과 외재론적 성향의 평균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의 사주인식론을 확인하면 조직 행위론상의 내재론자와 외재론자를 간단하게 분류할 수 있다.

넷째, 사주에 의한 자기보고식 성격특성의 평균은 연령, 성별, 직업 등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사주명리학에 의한 자기 보고식 성격특성 차원들은 조직 행위론상의 기존 성격 특성들처럼 다양한 인구 통계적 특성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논문은 9개의 가설을 설정해 놓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지법을 통하여 통계를 내어 분석한 논문이다. 9개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표 II-6> 정국용(2003) 논문의 가설검증의 결과

가설		채택여부
가설 1	자기보고에 의한 성격특성과 사주명식에 의한 성격특성은 일치할 것이다.	채택
가설 2-1	신강자, 내재론자, 용의 외향성간에는 유의미한 정의 상관성이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 2-2	사주에 의한 외향성과 용의 외향성 간에는 유의미한 정의 상관성이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 2-3	도리형과 용의 내향성 간에는 유의미한 정의 상관성이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 2-4	실리형과 용의 외향성 간에는 유의미한 정의 상관성이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 3	사주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재론적 성향과 외재론적 성향의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 4-1	사주에 의한 자기보고식 성격특성(신강형, 신약형, 외향형, 내향형, 도리형, 실리형)의 평균은 연령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부분채택
가설 4-2	사주에 의한 자기보고식 성격특성(신강형, 신약형, 외향형, 내향형, 도리형, 실리형)의 평균은 성별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부분채택
가설 4-3	사주에 의한 자기보고식 성격특성(신강형, 신약형, 외향형, 내향형, 도리형, 실리형)의 평균은 직업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부분채택

또한 위의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 성과를 얻음과 동시에 사주명식에 의한 성격예측의 방법이 서양의 성격예측 방법보다 주관성을 배제할 수 있는 장점과 검사의 효율성이 우수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주명리학 이론에 의한 성격특성 예측은 인적자원의 확보와 관리의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2. 편중된 심성과 성격연구

다음으로 성격특성에 관한 사주명리학적 접근을 시도한 논문으로 본 연구가 추구하는 오행은 아니어도 심성이 편중된 사주구조가 가지는 성격특성을 매슬

로우의 육구이론과 비교하여 연구한 논문으로 『육신의 편중에 의한 성격특성 연구』(김종만, 2005)가 있다.

각 편중된 심성이 발현시키는 성격적 특성은 <표 II-1>에서 밝혔으므로 연구결과를 분석한 내용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보고에 의한 성격특성과 설정된 가설의 조작적으로 정의한 성격특성과의 일치정도는 모든 육신에서 높은 수준(평균 73.5%)으로 나타났다.

둘째, 편중된 육신이 월지에 있는 경우, 성격특성과의 일치정도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수준(평균 87.2%)으로 나타났다.

셋째, 편중된 육신이 월지에 있고 천간으로 투간하여 월지 육신 본기의 격이 된 경우, 성격특성의 일치정도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매우 높은 수준(평균 93.0%)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도 사주는 사람의 선천적 성격특성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도구로서의 타당성이 있음을 검증하였고 사주명리학은 사람들에게 향상된 삶의 질을 부여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학문이라는 결론을 내고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주의 오행분포가 성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사람의 성격이 주어진 환경과 후천적인 변인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요인도 있겠지만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부분이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면을 밝혀 교육적인 면, 직업적성, 심리치료에 적절한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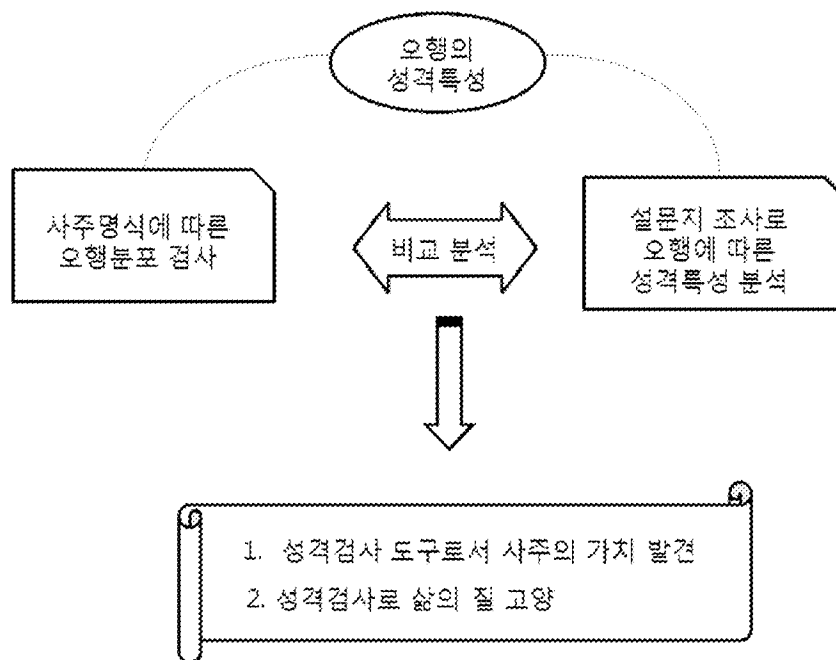
<표 II-7> 주요 선행연구

연구자	제목 및 연구내용	발표기관 (출처)
정국용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격특성의 예측을 위한 사주명리학에 관한 연구</li> <li>-사주명식에 의한 성격예측의 방법이 서양의 성격예측 방법보다 주관성을 배제할 수 있는 장점과 검사의 효율성이 우수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li> <li>-사주명리학 이론에 의한 성격특성 예측은 인적자원의 확보와 관리의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li> </ul>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종만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신의 편중에 의한 성격특성 연구</li> <li>-사주는 사람의 선천적 성격특성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도구로서의 타당성이 있음을 검증하였다.</li> <li>-사주는 사람들에게 향상된 삶의 질을 부여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학문이라는 결론을 내고 있다.</li> </ul>	경기대학교 국제문화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Ⅲ. 연구의 방법 및 절차

#### A. 연구모형

본 연구는 사주오행의 분포가 성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여 그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화토금수의 오행이 가지는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러한 특징이 성격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사주오행의 분포가 성격에도 그대로 반영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 설문조사하여 분석해 보는 방법을 사용한다.



< 그림 Ⅲ-1 > 연구의 모형



## B. 연구가설 및 판별기준

연구의 목적은 사주의 오행분포가 성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보는 것으로 연구가설은 오행에 따른 직접적인 성격형성에 미친 영향과 부재오행이 성격형성에 미친 영향을 검증하고자 다음의 가설에 따른 분석을 실시한다.

### 1. 연구 가설

**[가설 I] 사주의 오행분포는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木火土金水의 오행은 각 오행에 따라 성정과 속성이 뚜렷하게 구분될 수 있다. 목은 의욕과 성장을 의미하므로 목기운이 많은 사람은 일의 시작을 잘 하고 과시욕이 강하다. 화는 밝고 정신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외적인 면을 중시하고 약간은 충동적인 면도 많다. 토는 신용과 중용을 의미하므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자신의 실속을 잘 챙기는 현실적인 사람이다. 금은 의리와 결단성을 의미하므로 자제력이 있고 혁신적인 변화에 강한 사람이다. 수는 지혜와 기획력을 의미하므로 적응력이 강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기질이 있다.

오행에 의한 성격은 위의 기본 개념에서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국면으로 성격이 발현되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려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오행에 의한 성격이 발현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각 오행에 의한 성격은 오행의 분포에 의한 영향이 크므로 이에 따른 분석과 더불어 각 오행별로 5단계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설 I-1] 사주에서 목기운이 많은 구조는 목에 해당되는 성격이 강하게

발현될 것이다.

[가설 I-2] 사주에서 화기운이 많은 구조는 화에 해당되는 성격이 강하게 발현될 것이다.

[가설 I-3] 사주에서 토기운이 많은 구조는 토에 해당되는 성격이 강하게 발현될 것이다.

[가설 I-4] 사주에서 금기운이 많은 구조는 금에 해당되는 성격이 강하게 발현될 것이다.

[가설 I-5] 사주에서 수기운이 많은 구조는 수에 해당되는 성격이 강하게 발현될 것이다.

## **[가설 II] 부재오행은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木火土金水의 오행은 각 오행이 성정과 속성이 강력한 만큼 부재오행에 의한 성격적인 결함도 강력하게 발현될 것으로 가설을 세워 검증해 보기로 하였다.

[가설 II-1] 사주에서 목기운의 부재는 이에 따른 성격적 특징이 나타날 것이다.

[가설 II-2] 사주에서 화기운의 부재는 이에 따른 성격적 특징이 나타날 것이다.

[가설 II-3] 사주에서 토기운의 부재는 이에 따른 성격적 특징이 나타날 것이다.

[가설 II-4] 사주에서 금기운의 부재는 이에 따른 성격적 특징이 나타날 것이다.

[가설 II-5] 사주에서 수기운의 부재는 이에 따른 성격적 특징이 나타날

것이다.

## 2. 판별 기준

위의 가설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성격발현에 대한 내용은 설문지문항의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로 판별이 가능하다. 사주구조에서 강하게 자리잡은 오행에 대한 판별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준 1 - 지지의 삼합을 이루고 있거나 방합을 이루고 있어서 오행분포가 확실하게 많다고 판별되는 사주는 그대로 그 오행으로 판별하였다.

기준 2 - 위치별로 그 오행이 가지는 세력의 우위와 오행의 개수를 확인하여 판별하였다.

기준 3 - 오행의 분포가 비슷해 보이는 경우는 월지를 차지하고 있는 오행으로 판별하였다.

사주구조에서 부재오행에 대한 판별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준 1 - 사주에서 없는 오행 1개를 기준으로 판별하였다.

기준 2 - 지장간에도 없는 오행이 2개 이상인 경우라면 사주원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오행으로 판별하였다.

기준 3 - 오행이 모두 있는 경우라면 사주에서 위치별로 그 세력을 판별하거나 합충과 생극작용을 보고 판별하였다.

## C. 연구대상

이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2008. 03 - 04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설문대상은 서울과 인천 그리고 충청도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3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에서 응답이 부적절한 대상과 내용이 누락된 설문을 제외하고 총 324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 D. 조사도구

### 1. 연구의 절차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본 연구를 실시한다.

- 먼저 사주오행에 의하여 발현되는 성격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성격검사 용어로 작성하여 조사도구를 개발한다.
- 각 오행별로 작성된 문구가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다.
- 설문조사 한 결과와 관련지어 각 오행의 분포와 성격발현과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각 오행별로 관련성을 분석한다.
- 설문조사 한 결과와 관련지어 각 오행의 유무와 성격발현과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각 오행별로 관련성을 분석한다.
- 사주오행이 성격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오행의 분포와 관련지어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하여 결론을 낸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며 동시에 각 오행이 가지는 기질들을 새롭게 현대적으로 조명하여 현대 사주명리학의 이론정립에 기여하고

자 한다.

## 2. 설문지 문항 분석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지는 사주의 오행분포에 따른 성격형성을 측정하기 위해 5단계로 답할 수 있는 Likert척도로 구성하였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 ④대체로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로 답할 수 있으며 점수는 1점에서 5점까지 부과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다음의 <표 III-1>과 같으며 오행분포와 성격특성과의 상관관계와 함께 부재오행에 의한 성격특성 또한 검증할 수 있도록 문항을 작성하였다.

<표 III-1> 설문지 문항구성

구분 기준	세부 질문 사항	문항번호	문항수
오행에 따른 성격특성	목에 의한 성격특성	I - 1, 7, 3	3
	화에 의한 성격특성	I - 2, 5, 25	3
	토에 의한 성격특성	I - 9, 16, 21	3
	금에 의한 성격특성	I - 12, 17, 20	3
	수에 의한 성격특성	I - 4, 10, 22	3
오행의 부재에 의한 성격특성	목의 부재와 성격특성	I - 11, 24	2
	화의 부재와 성격특성	I - 3, 8	2
	토의 부재와 성격특성	I - 14, 18	2
	금의 부재와 성격특성	I - 6, 19	2
	수의 부재와 성격특성	I - 15, 23	2
사주명식 구성위한 질문	성별질문	II - 1	1
	생년월일에 관한 질문	II - 2	1
오행관련 질문	선호색에 관한 질문	II - 3	1
인식도 조사	음양오행에 관한 인식	II - 4	1
	성격에 대한 인식	II - 5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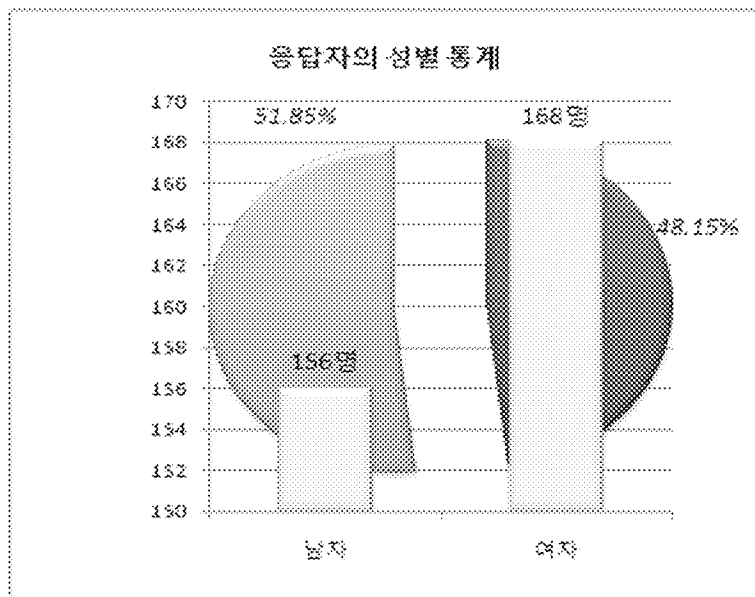
### 3. 자료의 처리

사주명식과 응답자가 작성한 설문지와의 결과를 비교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SPSS 1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처리하였다. 강하게 분포된 오행에 의하여 나타나는 성격적인 특성과 부재오행에 의하여 나타나는 성격적인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의 분석 및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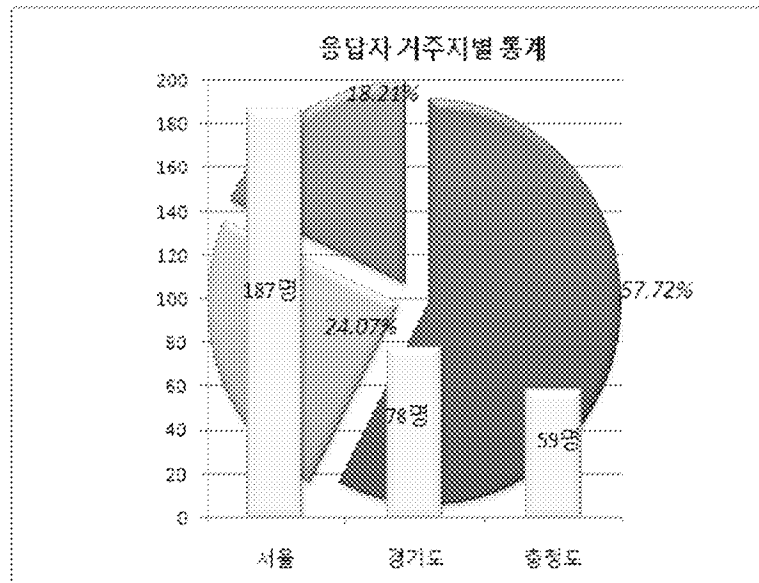
### A. 표본인구의 통계적 특성

응답자는 모두 324명으로 성별 통계는 다음의 <그림 IV-1>과 같이 여자의 비율이 다소 많았으며, 남자는 168명 여자는 156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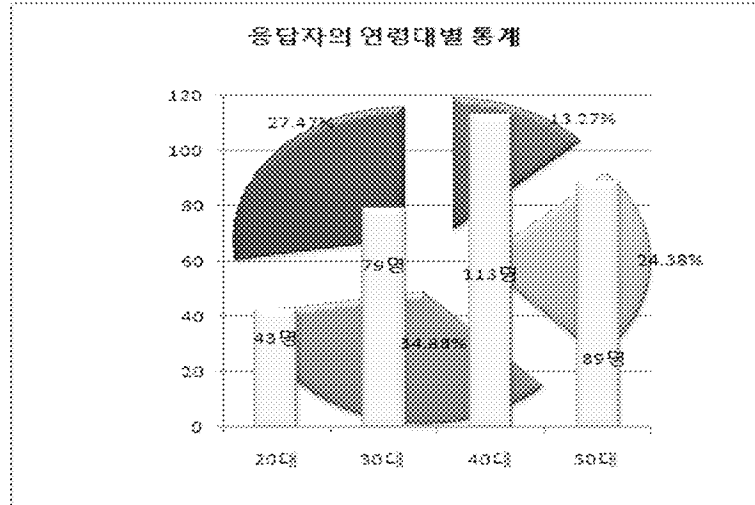
<그림 IV-1> 응답자 성별 통계

응답자 324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다음의 <그림 IV-2>와 같다. 서울이 187명으로 가장 많은 57.72%이며 다음으로 경기도가 78명으로 24.07%, 충청도가 59명으로 18.21%였다.



<그림 IV-2> 응답자 거주지별 통계





<그림 IV-3> 응답자 연령대별 통계

응답자 324명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다음의 <그림 IV-3>과 같다. 20대가 43명으로 13.27%이며 30대가 79명으로 24.38%, 40대가 113명으로 가장 많은 34.88%였으며 50대는 89명으로 27.47%였다.

## 1. 응답자 사주에 관한 일반적 통계

응답자 324명의 사주에 대한 일반적인 통계는 일간별, 사주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오행과 없거나 가장 적은 분포를 보이는 오행으로 구분하여 보았다. 먼저 일간별 통계는 다음의 <표 IV-1>과 같다.

### a. 일간별 통계

<표 IV-1> 응답자 사주의 일간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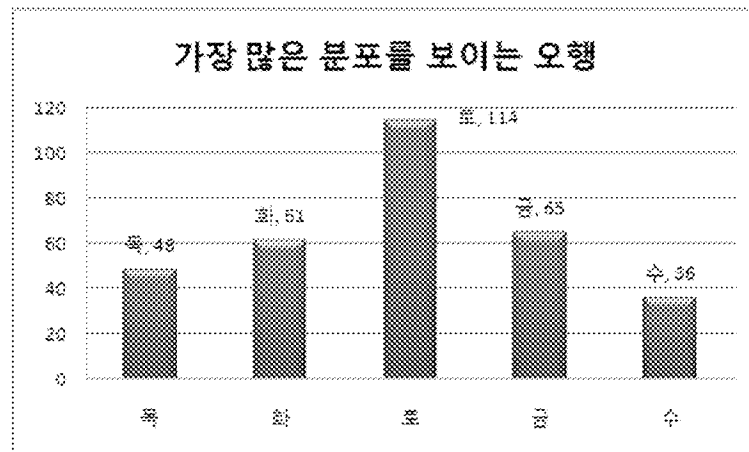
N=324

일간별	빈도(명)	백분율(%)
갑목	28	8.64%
을목	27	8.33%
병화	32	9.88%
정화	42	12.96%
무토	24	7.41%
기토	39	12.04%
경금	34	10.49%
신금	31	9.57%
임수	26	8.02%
계수	41	12.65%

응답자 사주의 일간별 분포는 거의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 b. 사주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오행 통계

응답자 사주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오행에 대한 분석은 <그림 IV-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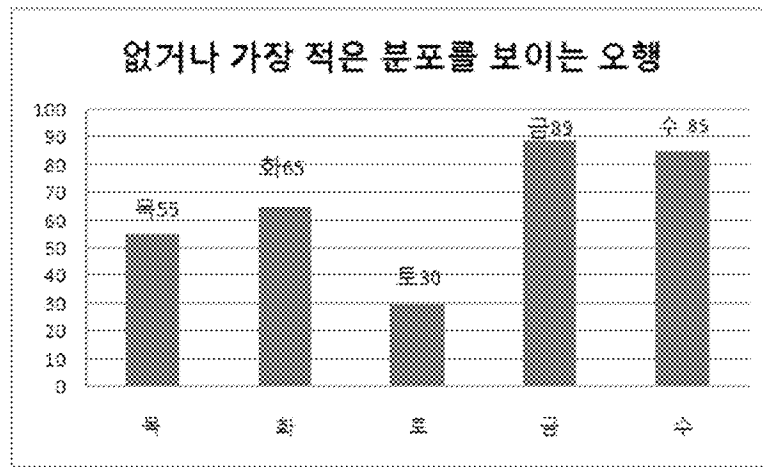


<그림 IV-4> 응답자 사주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오행

사주에서의 가장 많은 오행의 분포는 위의 그림과 같았다. 참고로 木은 빈도가 48명, 火는 61명, 土는 115명, 金은 66명, 水는 36명으로 土가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

### c. 사주에서 없거나 적은 분포를 보이는 오행 통계

사주에서의 없거나 적은 오행의 분포는 아래의 <그림 IV-5>의 그림과 같았으며 金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참고로 木은 빈도가 55명, 火는 65명, 土는 30명, 金은 89명, 水는 85명으로 金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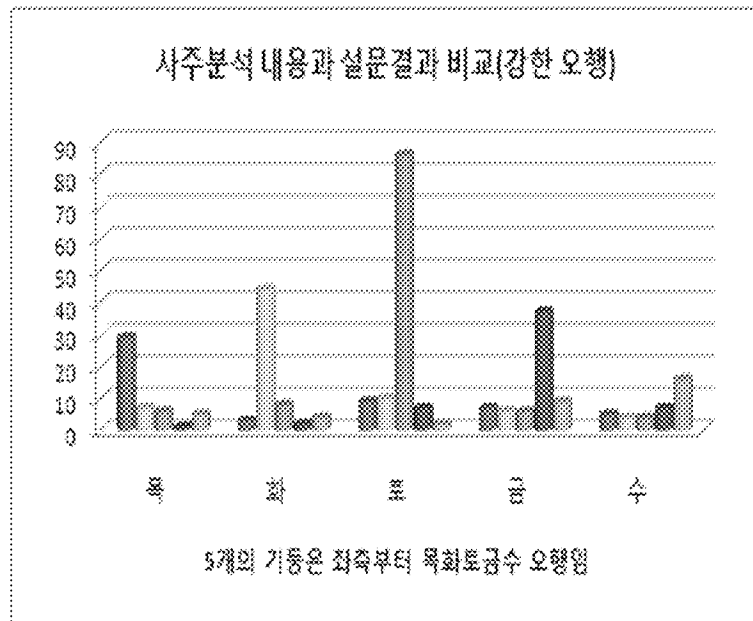
<그림 IV-5> 응답자 사주에서 없거나 가장 적은 분포를 보이는 오행

## 2. 응답자 설문에 대한 통계

본 연구에서 사주를 분석하여 오행의 분포를 판별하였는데 이 결과와 설문지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a.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오 행 비교

사주를 분석한 결과와 설문지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그림 IV-6>과 같은 결과가 나왔으며 이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림 IV-6> 사주분석 내용과 설문결과와의 비교(강한 오행)

위의 결과를 표로 자세히 나타내면 <표 IV-2>, <표 IV-3>과 같이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표 IV-2> 사주분석내용과 설문결과와의 오행별 빈도(강한오행) N=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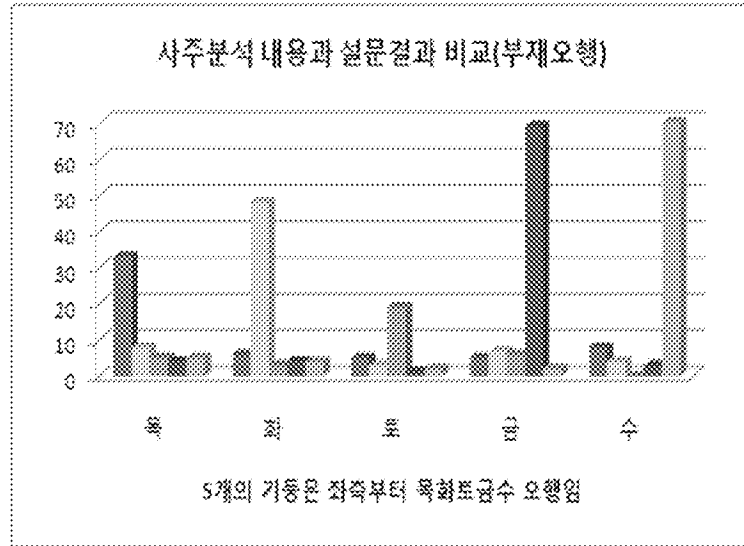
사주분석 설문분석	목	화	토	금	수
목	29	3	9	7	5
화	7	44	10	6	4
토	6	8	86	6	4
금	1	2	7	37	7
수	5	4	2	9	16

<표 IV-3> 사주분석내용과 설문결과의 비교(강한오행) N=324

오행구분 분석대상	목	화	토	금	수
사주원국	48	61	114	65	36
설문결과	53	71	110	54	36

#### b. 없거나 적은 분포를 보이는 오행 비교

사주를 분석한 결과와 설문지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그림 IV-7>과 같은 결과가 나왔으며 이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림 IV-7> 사주분석 내용과 설문결과와의 비교(부재오행)

위의 결과를 표로 자세히 나타내면 <표 IV-4>, <표 IV-5>과 같이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표 IV-4> 사주분석내용과 설문결과와의 오행별 빈도(부재오행) N=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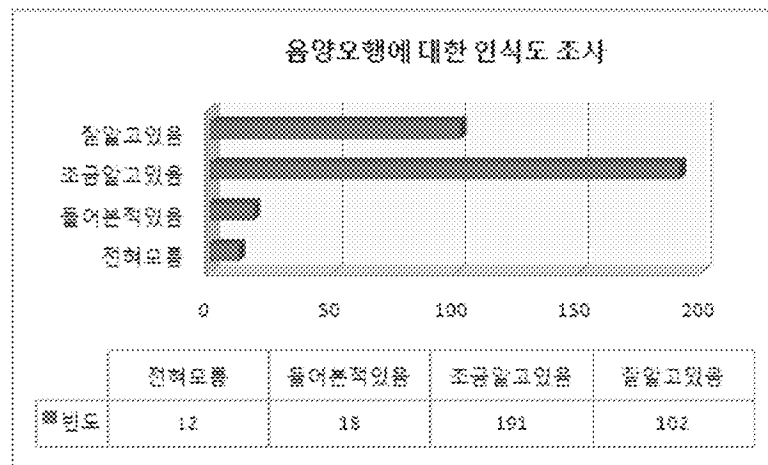
사주분석 설문분석	목	화	토	금	수
목	33	6	5	5	8
화	8	48	3	7	4
토	5	3	19	6	0
금	4	4	1	69	3
수	5	4	2	2	70

<표 IV-5> 사주분석내용과 설문결과의 비교(부재오행) N=324

오행구분 분석대상	목	화	토	금	수
사주원국	55	65	30	89	85
설문결과	57	70	33	81	83

### c. 음양오행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사주명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철학인 음양오행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 IV-8>과 같다.



<그림 IV-8> 음양오행에 대한 인식도 조사 N=324

위의 그림은 빈도수를 서로 비교하여 나타내었으며 그 결과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전혀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도 있었으나 대부분 음양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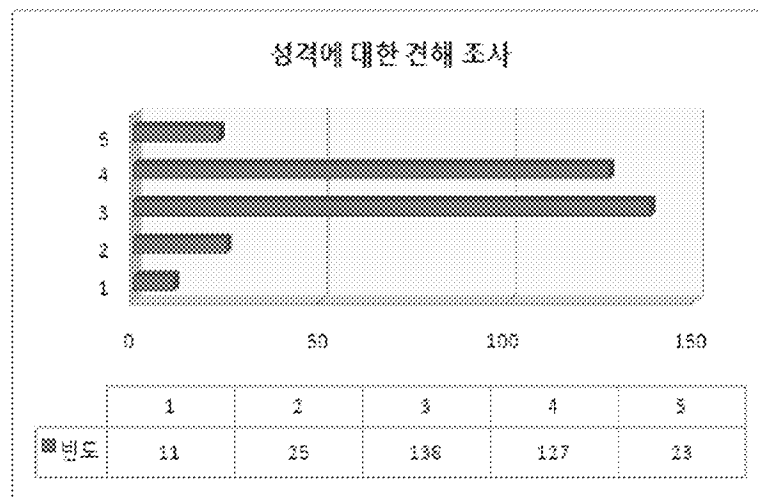


행에 대하여 기본적인 인식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참고로 음양오행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전혀모름은 12명으로 3.70%, 들어본 적은 있음이 18명으로 5.56%, 조금알고 있음은 19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8.95%였고,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02명으로 31.48%를 차지하고 있었다.

#### d. 성격에 대한 견해 조사

응답자들이 사람이 고유하게 가지는 성격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여기서 선천적인 성격이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성격이며, 후천적인 성격이란 태어난 이후에 부모나 주어진 환경에 의해 형성되어지는 성격을 의미한다고 할 때 이 2가지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도를 조사해 보았다.



<그림 IV-9> 성격형성에 대한 인식도 조사 N=324

앞의 <그림 IV-9>에서 번호 1번에서 5번까지가 의미하는 바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그러므로 응답자의 대다수가 성격은 선천적인 면과 후천적인 면 모두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만 선천적인 면이 다소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견해가 다소 강했다.

참고로 성격형성에 대한 견해는 선천적인 면이 절대적이라는 견해가 11명으로 3.39%, 후천적인 면이 절대적이라는 견해는 25명으로 7.72%, 둘 다 영향을 받으나 선천적인 면이 다소 강할 것이라는 견해가 138명으로 42.59%, 둘 다 영향을 받으나 후천적인 면이 다소 강할 것이라는 견해는 127명으로 39.19% 마지막으로 2가지가 균등할 것이라는 견해는 23명으로 7.09%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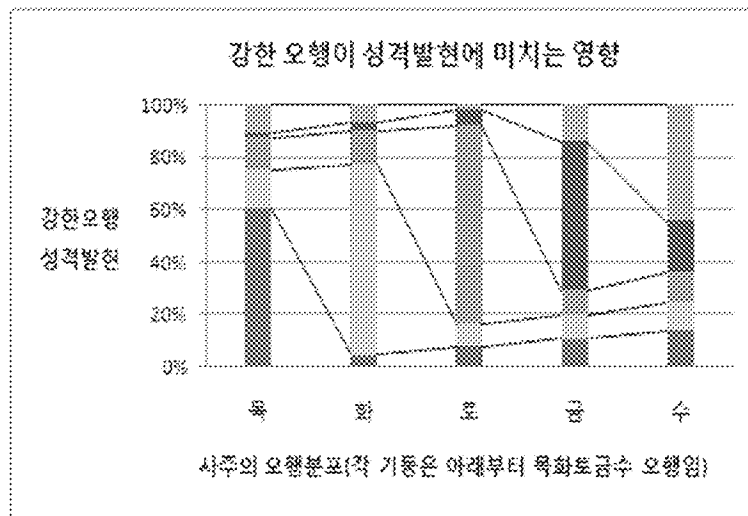
- ① 성격은 선천적인 영향이 절대적일 것이다.
- ② 성격은 환경에 의한 후천적인 영향이 절대적일 것이다.
- ③ 성격은 선천적, 후천적 영향을 모두 받지만 선천적인 면이 더 강할 것이다.
- ④ 성격은 선천적, 후천적 영향을 모두 받지만 후천적인 면이 더 강할 것이다.
- ⑤ 성격은 선천적, 후천적 영향이 모두 균등하게 영향을 줄 것이다.

## B. 연구의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사주의 오행분포가 성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보는 것으로, 사주 원국에 강하게 분포된 오행과 부재오행이 성격형성에 미친 영향을 검증하고자 다음의 2가지 가설을 세워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가설 I -강한 오 행과 성격발현의 관계

가설 I 은 사주의 오행분포는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으로, 사주의 오행분포와 성격발현과의 관계는 <그림 IV-10>과 같으며 각 막대는 오행이 木火土金水의 순서대로 각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IV-10> 사주의 오행분포와 성격발현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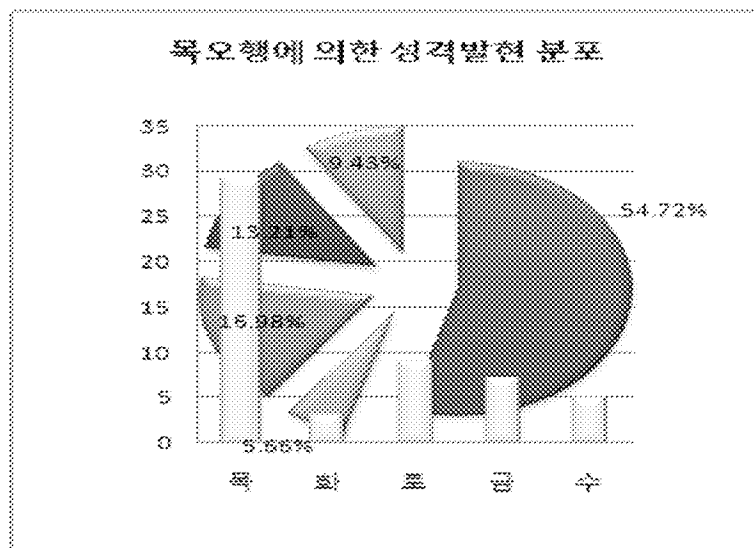
위의 <그림 IV-10>은 사주에서 각 오행이 강하게 분포된 사주에서 해당되는 오행의 성격이 강하게 발현되는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각 오행별로 해당되는 성격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음을 통하여, [가설 I]에 대한 내용을 검증할 수 있다.

위의 결과를 각 木火土金水 오행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a. 목 오 행에 의한 성격발현

<그림 IV-11>은 사주원국에서 강하게 분포된 목 오 행에 의해서 목 오 행의 성격이 아래와 같이 발현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 항상 새로운 일을 생각하고 시작하기를 좋아한다.
- 다소 이기적이나 사람들을 이끌고 리드하기를 잘 한다.
-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하고 과시하려는 기질이 강하다.



<그림 IV-11> 사주원국의 목오행과 성격발현 분포도

또한 목 오 행에 의한 성격분포는 다음의 <표 IV-6>과 같으며 목오행이 강하게 분포한 사주구조에서는 목오행에 의한 성격이 54.72%로 강하게 발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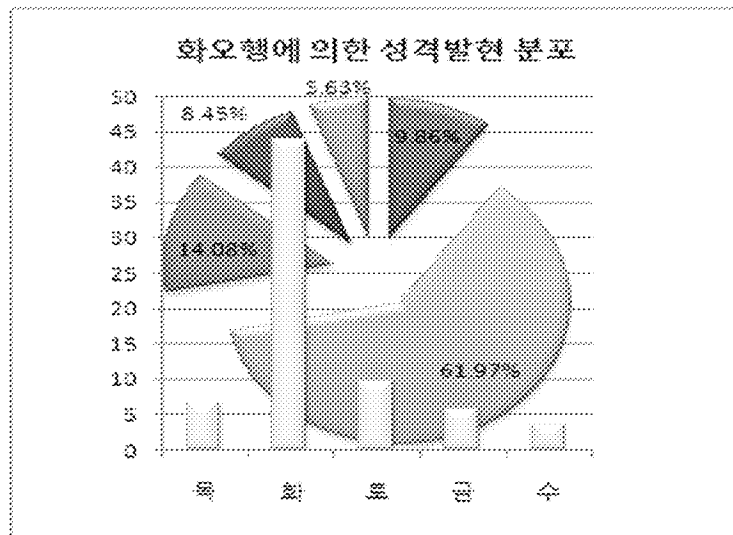
<표 IV-6> 사주의 강한 木오행에 의한 성격발현 분포 N=53

오행구분 분포도	목	화	토	금	수
빈도	29	3	9	7	5
백분율	54.72%	5.66%	16.98%	13.21%	9.43%

## b. 火오행에 의한 성격 발현

<그림 IV-12>는 사주원국에서 강하게 분포된 화 오행에 의해서 화 오행의 성격이 아래와 같이 발현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 문화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감성적인 면이 많다.
- 외적으로 보여지는 면과 체면을 중시한다.
- 애매모호한 것을 싫어하며 충동적일 때가 많다.



<그림 IV-12> 사주원국의 火오행과 성격발현 분포도

또한 화 오행에 의한 성격분포는 다음의 <표 IV-7>과 같으며 火오행이 강하게 분포한 사주구조에서는 火오행에 의한 성격이 61.97%로 강하게 발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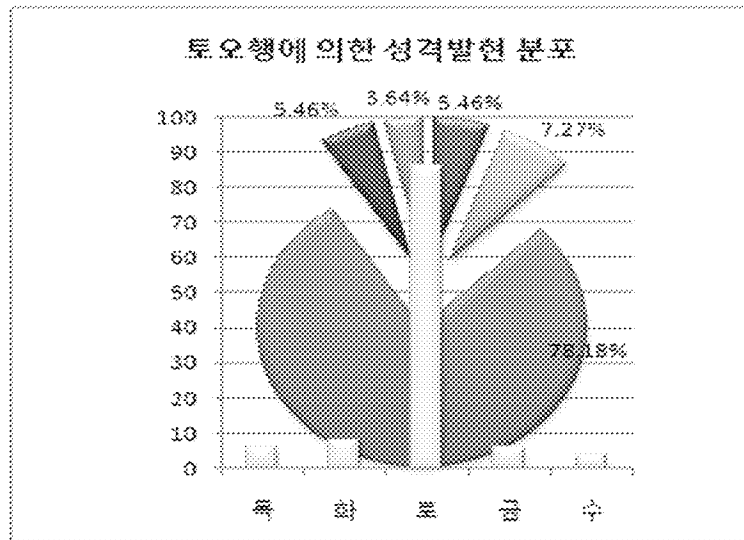
<표 IV-7> 사주의 강한 火오행에 의한 성격발현 분포 N=71

오행구분 분포도	목	화	토	금	수
빈도	7	44	10	6	4
백분율	4.86%	61.97%	14.08%	8.45%	5.63%

### c. 土오행에 의한 성격 발현

<그림 IV-13>은 사주원국에서 강하게 분포된 토 오행에 의해서 토 오행의 성격이 아래와 같이 발현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 누구와도 무난하게 지내며 믿음직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 모든 문제의 타협점을 찾아 잘 해결한다.
- 과거를 참고하여 일에 대한 판단을 하며 현실적인 결정을 한다.



<그림 IV-13> 사주원국의 토오행과 성격발현 분포도

토 오행에 의한 성격분포는 다음의 <표 IV-8>과 같으며 토오행이 강하게 분포한 사주구조에서는 토오행에 의한 성격이 78.46%로 강하게 발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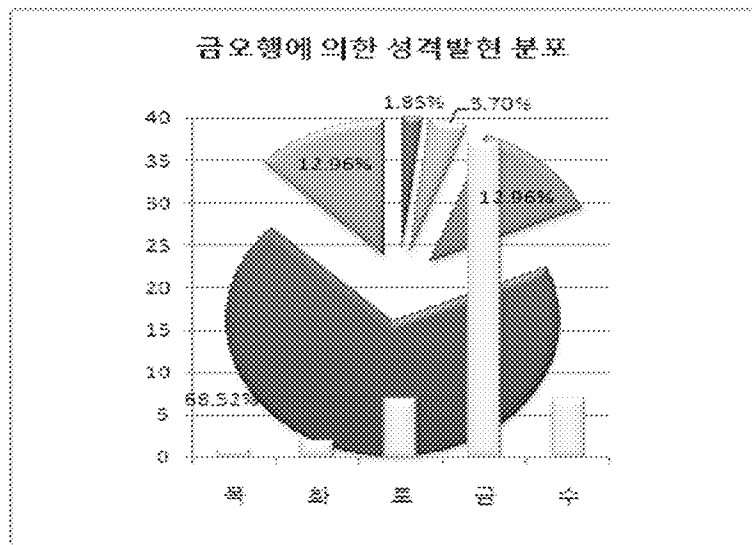
<표 IV-8> 사주의 강한 토오행에 의한 성격발현 분포 N=110

오행구분 분포도	목	화	토	금	수
빈도	6	8	86	6	4
백분율	5.46%	7.27%	78.46%	5.46%	3.64%

#### d. 金오행에 의한 성격 발현

<그림 IV-14>은 사주원국에서 강하게 분포된 金 오행에 의해서 金 오행의 성격이 아래와 같이 발현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 분명한 기준으로 행동하므로 과감한 면이 있다.
- 냉정해 보이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의리가 있다.
- 자제력이 강하며 항상 뒷일을 생각하며 행동한다.



<그림 IV-14> 사주원국의 金오행과 성격발현 분포도

金 오행에 의한 성격분포는 다음의 <표 IV-9>와 같으며 金오행이 강하게 분포한 사주구조에서는 金오행에 의한 성격이 68.52%로 강하게 발현되고 있다.



<표 IV-9> 사주의 강한 金오행에 의한 성격발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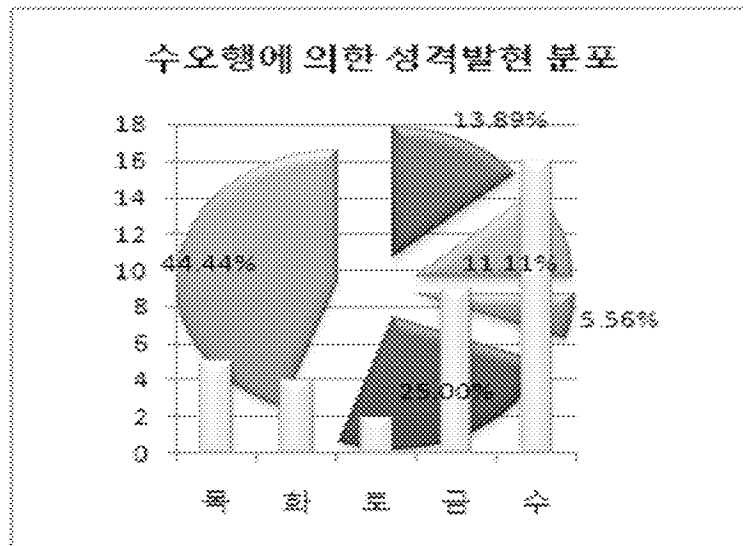
N=54

오행구분 분포도	목	화	토	금	수
빈도	1	2	7	37	7
백분율	1.85%	3.70%	12.96%	68.52%	12.96%

#### e. 水오행에 의한 성격 발현

<그림 IV-15>는 사주원국에서 강하게 분포된 수 오행에 의해서 수 오행의 성격이 아래와 같이 발현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 책임감이 강하고 변화에 대하여 적응을 잘 한다.
- 일을 기획하고 실천해 나가는 안목이 좋다.
- 철학에 관심이 많고 패기있는 행동보다는 안정을 더 추구한다.



<그림 IV-15> 사주원국의 水오행과 성격발현 분포도

水 오행에 의한 성격분포는 다음의 <표 IV-10>과 같으며 水오행이 강하게 분포한 사주구조에서는 水오행에 의한 성격은 44.44%로 강하게 발현되고 있다.

<표 IV-10> 사주의 강한 水오행에 의한 성격발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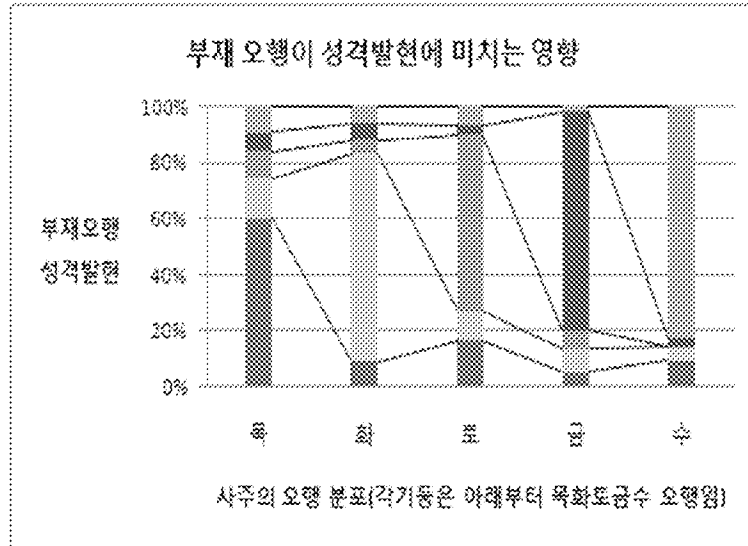
N=36

오행구분 분포도	목	화	토	금	수
빈도	5	4	2	9	16
백분율	13.89%	11.11%	5.56%	25.00%	44.44%

## 2. 가설Ⅱ-부재 오행과 성격발현의 관계

가설Ⅱ의 내용은 부재오행은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으로, 부재오행과 성격발현과의 결과는 <그림 IV-16>과 같다. 사주에서 그 오행이 부재오행이거나 적은 분포를 보이는 구조도 성격발현과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림은 각기 木火土金水의 오행을 순서대로 나타내고 있으며 사주구조에서 부재오행이 성격발현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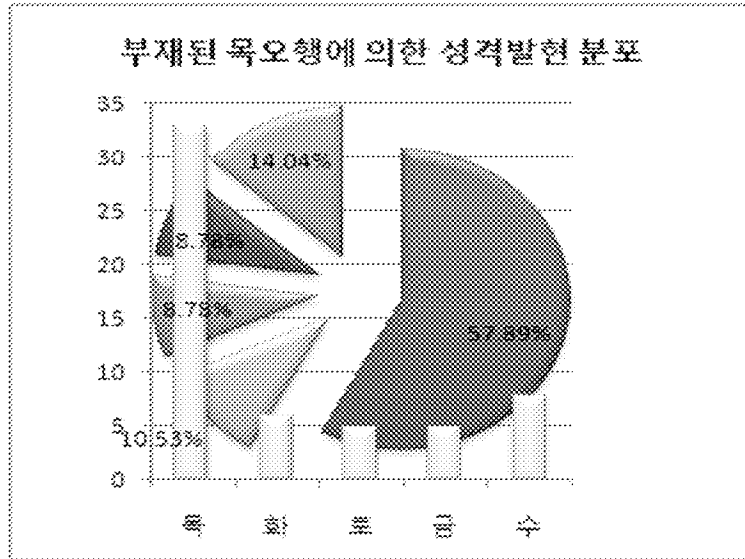
<그림 IV-16> 부재오행이 성격발현에 미치는 영향

다음은 각 사주구조에서의 부재오행별로 성격발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 a. 木오행의 부재에 의한 성격 발현

<그림 IV-17>은 사주원국에서 부재된 목 오행에 의해서 성격이 아래와 같이 발현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 집중력이 부족하여 매우 산만한 경향이 있다.
- 사고력 부족이 원인이 되어 불안하고 대인관계에 두려움이 많다.



<그림 IV-17> 사주원국의 부재된 木오행에 의한 성격발현 분포도

부재된 목 오행에 의한 성격발현 분포는 다음의 <표 IV-11>과 같으며, 57.89%로 강하게 발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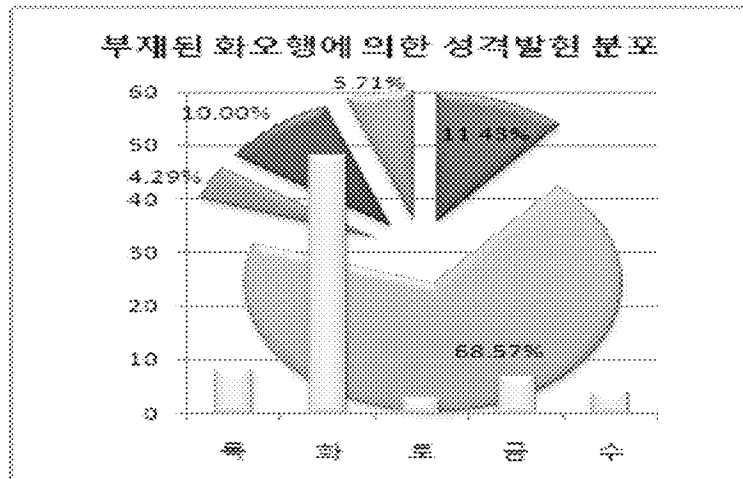
<표 IV-11> 사주의 부재된 木오행에 의한 성격발현 분포 N=57

오행구분 분포도	목	화	토	금	수
빈도	33	6	5	5	8
백분율	57.89%	10.53%	8.78%	8.78%	14.04%

#### b. 火오행의 부재에 의한 성격 발현

<그림 IV-18>은 사주원국에서 부재된 화 오행에 의해서 성격이 아래와 같이 발현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 삶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다.
- 표현력 부족이 원인이 되어 인화력이 떨어진다.



<그림 IV-18> 사주원국의 부재된 火오행에 의한 성격발현 분포도

부재된 화 오행에 의한 성격발현 분포는 다음의 <표 IV-12>와 같으며, 68.57 %로 강하게 발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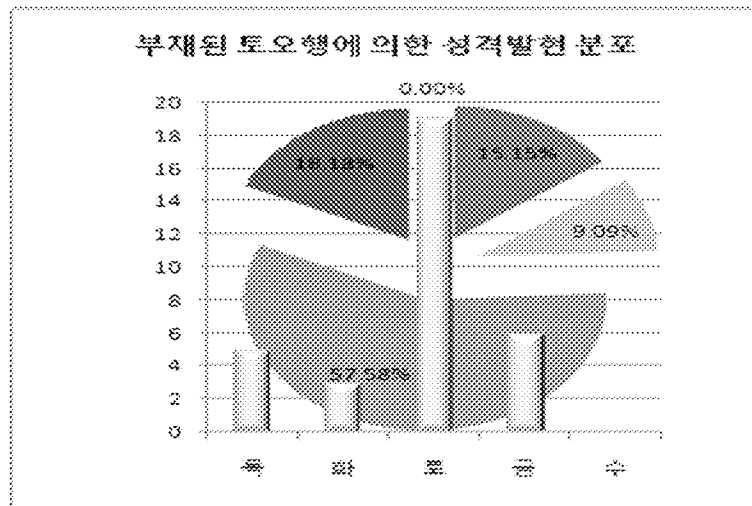
<표 IV-12> 사주의 부재된 火오행에 의한 성격발현 분포 N=70

오행구분 분포도	목	화	토	금	수
빈도	8	48	3	7	4
백분율	11.43%	68.57%	4.29%	10.00%	5.71%

### c. 土오행의 부재에 의한 성격 발현

<그림 IV-19>는 사주원국에서 부재된 토 오행에 의해서 성격이 아래와 같이 발현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 중요하지 않은 일에 자주 집착한다.
-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



<그림 IV-19> 사주원국의 부재된 土오행에 의한 성격발현 분포도

부재된 토 오행에 의한 성격발현 분포는 다음의 <표 IV-13>과 같으며, 57.58%로 강하게 발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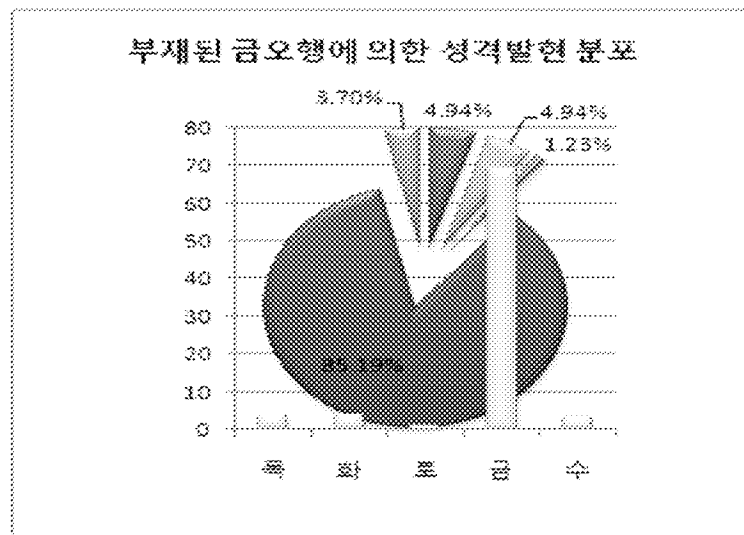
<표 IV-13> 사주의 부재된 土오행에 의한 성격발현 분포 N=33

오행구분 분포도	목	화	토	금	수
빈도	5	3	19	6	0
백분율	15.15%	9.09%	57.58%	18.18%	0.00%

#### d. 金오행의 부재에 의한 성격 발현

<그림 IV-20>은 사주원국에서 부재된 金 오행에 의해서 성격이 아래와 같이 발현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 뭔가 결정을 할 때 아주 많이 망설이게 된다.
- 시작은 잘 하는데 뚜렷한 결과가 없는 경우가 잦다.



<그림 IV-20> 사주원국의 부재된 金오행에 의한 성격발현 분포도

부재된 금 오행에 의한 성격발현 분포는 다음의 <표 IV-14>와 같으며, 85.19%로 강하게 발현되고 있다.

<표 IV-14> 사주의 부재된 금오행에 의한 성격발현 분포 N=8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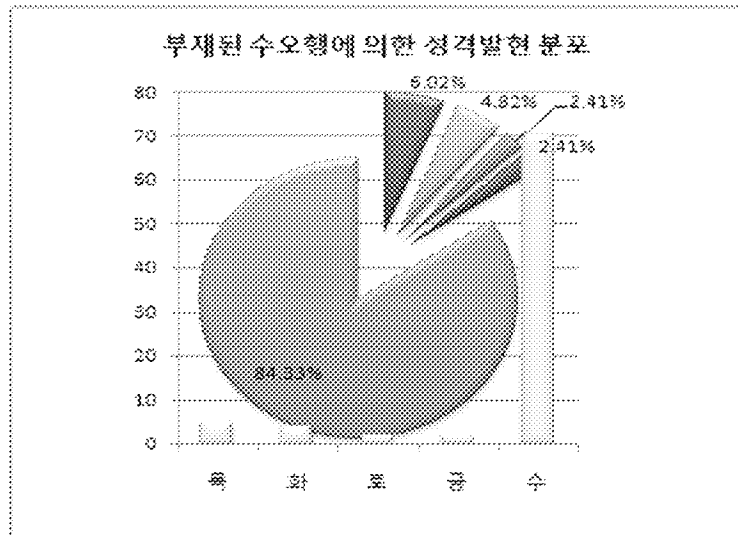
오행구분 분포도	목	화	토	금	수
빈도	4	4	1	69	3
백분율	4.94%	4.94%	1.23%	85.19%	3.70%

#### e. 水오행의 부재에 의한 성격 발현

<그림 IV-21>은 사주원국에서 부재된 수 오행에 의해서 성격이 아래와 같이 발현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 임기응변이 약하여 위기 대처 능력이 부족한 편이다.
- 정서가 메마르고 마음의 여유가 부족하다.





<그림 IV-21> 사주원국의 부재된 水오행에 의한 성격발현 분포도

부재된 수 오행에 의한 성격발현 분포는 다음의 <표 IV-15>와 같으며, 44.44%로 강하게 발현되고 있다.

<표 IV-15> 사주의 부재된 水오행에 의한 성격발현 분포 N=83

오행구분 분포도	목	화	토	금	수
빈도	5	4	2	2	70
백분율	6.02%	4.82%	2.41%	2.41%	84.33%

## C. 결과의 해석

본 연구는 사주의 오행분포가 성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으로 그 결과는 <표 IV-16>, <표 IV-17>과 같이 모든 가설이 채택되었다. 사주구조에서 강하게 분포되어 있는 오행에 의한 성격발현을 살펴보고 여기에 더하여 부재 오행에 의해 발현되는 성격도 살펴보았다. 명리학과 더불어 동양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이론인 음양오행론에서 오행에 의한 영향을 한 사람의 성격형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강한 오행뿐 아니라 부재오행에 의해서도 성격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검증되었다.

### 1. 가설 I -강한 오행과 성격발현의 관계

가설 I 은 사주의 오행분포가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는 내용이었다. 木火土金水의 오행은 한 사람의 성격형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강하게 분포된 오행이 주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여기에서 오행이 주는 성격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오행 중 木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강하게 발현시킨다.

- 항상 새로운 일을 생각하고 시작하기를 좋아한다.
- 다소 이기적이나 사람들을 이끌고 리드하기를 잘 한다.
-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하고 과시하려는 기질이 강하다.

둘 째, 오행 중 火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강하게 발현시킨다.

- 문화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감성적인 면이 많다.

- 외적으로 보여지는 면과 체면을 중시한다.
- 애매모호한 것을 싫어하며 충동적일 때가 많다.

셋째, 오행 중 土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강하게 발현시킨다.

- 누구와도 무난하게 지내며 믿음직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 모든 문제의 타협점을 찾아 잘 해결한다.
- 과거를 참고하여 일에 대한 판단을 하며 현실적인 결정을 한다.

넷째, 오행 중 金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강하게 발현시킨다.

- 분명한 기준으로 행동하므로 과감한 면이 있다.
- 냉정해 보이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의리가 있다.
- 자제력이 강하며 항상 뒷일을 생각하며 행동한다.

다섯째, 오행 중 水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강하게 발현시킨다.

- 책임감이 강하고 변화에 대하여 적응을 잘 한다.
- 일을 기획하고 실천해 나가는 안목이 좋다.
- 철학에 관심이 많고 쾌기있는 행동보다는 안정을 더 추구한다.

연구결과 위의 성격적인 특징은 사주에서 강하게 자리잡은 오행에 의해서 설문결과 높은 점수로 나타났으며, ‘사주의 오행분포는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I의 검증결과는 다음의 <표 IV-16>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표 IV-16> [가설 I] 의 검증 결과

[가설 I]	가설 내용	채택여부
[가설 I-1]	사주에서 목기운이 많은 구조는 목에 해당되는 성격이 강하게 발현될 것이다.	채택
[가설 I-2]	사주에서 화기운이 많은 구조는 화에 해당되는 성격이 강하게 발현될 것이다.	채택
[가설 I-3]	사주에서 토기운이 많은 구조는 토에 해당되는 성격이 강하게 발현될 것이다.	채택
[가설 I-4]	사주에서 금기운이 많은 구조는 금에 해당되는 성격이 강하게 발현될 것이다.	채택
[가설 I-5]	사주에서 수기운이 많은 구조는 수에 해당되는 성격이 강하게 발현될 것이다.	채택

## 2. 가설 II-부재오행과 성격발현의 관계

가설 II는 사주 구조에서 부재오행에 의한 성격발현을 밝혀보는 내용이다. 연구결과 한 사람의 성격은 강하게 분포된 오행뿐 아니라 부재오행으로 인하여서도 한 사람의 성격이 다음과 같이 발현되고 있음을 검증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부재오행이 주는 성격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부재오행 木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강하게 발현시킨다.

- 집중력이 부족하여 매우 산만한 경향이 있다.
- 사고력 부족이 원인이 되어 불안하고 대인관계에 두려움이 많다.

둘 째, 부재오행 火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강하게 발현시킨다.

- 삶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다.
- 표현력 부족이 원인이 되어 인화력이 떨어진다.

셋 째, 부재오행 土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강하게 발현시킨다.

- 중요하지 않은 일에 자주 집착한다.
-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

넷 째, 부재오행 金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강하게 발현시킨다.

- 뭔가 결정을 할 때 아주 많이 망설이게 된다.
- 시작은 잘 하는데 뚜렷한 결과가 없는 경우가 잦다.

다섯 째, 부재오행 水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강하게 발현시킨다.

- 임기응변이 약하여 위기 대처 능력이 부족한 편이다.
- 정서가 메마르고 마음의 여유가 부족하다.

연구결과 위의 부재오행에 의한 성격적인 특징 또한 설문결과 해당되는 부재오행에 의하여 높은 점수로 나타났으며, ‘부재오행은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Ⅱ의 검증결과는 다음의 <표 IV-17>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표 IV-17> [가설 II] 의 검증 결과

[가설 II]	가설 내용	채택 여부
[가설 II-1]	사주에서 목기운의 부재는 이에 따른 성격적 특징이 나타날 것이다.	채택
[가설 II-2]	사주에서 화기운의 부재는 이에 따른 성격적 특징이 나타날 것이다.	채택
[가설 II-3]	사주에서 토기운의 부재는 이에 따른 성격적 특징이 나타날 것이다.	채택
[가설 II-4]	사주에서 금기운의 부재는 이에 따른 성격적 특징이 나타날 것이다.	채택
[가설 II-5]	사주에서 수기운의 부재는 이에 따른 성격적 특징이 나타날 것이다.	채택

## V. 결 론

### A. 요약 및 결론

성격은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가 하는 행동이나 다양한 선택의 순간 그리고 인간관계 등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성격을 파악하고 연구하는 작업은 모든 인간이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자아실현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단계이다. 또한 현대 사회는 성공을 위한 조건으로 한 사람의 능력이 가장 주된 요인으로 꼽히던 시대가 아니라 성격적인 면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 사람의 성격이 발현되는 요인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성격연구에 대한 성과는 그동안 동서양을 통하여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MBTI 성격유형검사, 에니어그램 성격검사, MMPI 다면적 인성검사, KIPA 인성검사 등 다양한 성격검사 도구들이 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이러한 자기보고식 검사가 아니라 태어난 출생연월시를 통하여 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성격적인 면은 격국, 월지, 음양오행의 분포, 합충, 십성 등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2008. 03 - 04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서울, 경기도, 충청도에 거주하는 20대에서 50대까지의 성인 3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사주원국에서 강하게 분포된 오행과 부재오행이 설문문항에 해당되는 오행의 성격발현과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으며 각 오행별 분포와 그 오행을 통하여 발현되는 성격적인 특징을 분석하여 가설의 내용을 검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요소인 오행을 통하여 성격발현과

의 관계를 검증해 보고자 다음과 같은 2개의 가설을 세우고 검증해 보았다.

[가설 I] 사주의 오행분포는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I] 부재오행은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기서 [가설 I]은 사주원국에서 강하게 분포된 오행이 한 사람의 성격발현에도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설문 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해 보았다. 사주원국에서 강하게 분포된 오행을 판별하는 기준은 ‘Ⅲ. 연구의 설계’에서 ‘B. 연구가설 및 판별기준’에 제시하여 사주에서 개수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오행, 월지를 차지하고 있는 오행이거나 위치별로 강하게 성격을 발현시킬 수 있는 오행 등으로 구분하여 판별하였다.

또한 [가설 II]는 사주원국에서 부재되거나 가장 적은 분포를 보이는 오행이 한 사람이 성격발현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설문 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해 보았다. 이를 판별하는 기준은 ‘Ⅲ. 연구의 설계’에서 ‘B. 연구가설 및 판별기준’에 제시하여 부재된 오행 1개를 우선 판별하고 부재오행이 2개 이상인 경우와 부재오행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사주에서 강하게 분포된 木오행은 木오행에 해당되는 성격적인 특징이 발현되는 분포가 54.72%였으며 火오행은 61.97%, 土오행은 78.18%, 金오행은 68.52% 그리고 水오행은 44.44%로 각기 분포도는 달라도 각 오행별로 가장 높은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여기서 土오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전체를 아우르는 土오행 자체의 기질을 대변한 결과라고도 보아지며, 적응력을 의미하는 水오행은 가장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오행이어도 水오행 자체의 기질처럼 다른 오행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주에서 木오행이 부재된 경우 부재된 木오행에 의한 성격발현의 분포는 57.89%였으며 火오행은 68.57%, 土오행은 57.58%, 金오행은 85.19%, 水오행은 84.39%로 각기 분포도는 달라도 각 부재오행별로 가장 높은 우위를 차지



하고 있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金오행은 분명한 기준을 요구하고 다소 냉정한 金오행의 기질상 부재오행이 될 경우 확실하게 오행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으며, 같은 맥락으로 적응력을 대표하는 水오행의 부재 또한 분명한 오행의 부재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사주의 오행분포가 한 사람의 성격발현에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사주의 부재오행도 성격발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

이와 같이 2가지 가설은 모두 채택이 되었으며 사주명식에서 강하게 분포된 오행과 부재오행은 한 사람의 성격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오행분포의 분석은 성격판별의 기준이 될 수 있다.

## B. 제언

세계적인 심리학자 대니얼 골먼(Daniel Goleman)은 미래를 주도할 새로운 인간관계의 패러다임으로 SQ감성지능(Social Intelligence)을 설명하고 있다. IQ도 EQ도 아닌 SQ란 사람과의 교감을 잘 이루면서 상대방의 감정과 의도를 읽어내고 타인과 잘 어울리는 능력이다. 현대사회는 이 사회지능이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주장인 것이다.

미래에는 본 연구와 같이 한 사람의 성격적인 특성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욱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개발될 것이다. 적성과 흥미 이상으로 한 사람의 성격적인 특성은 그 사람의 직업, 인간관계, 인생관 등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본 연구 외에도 사주명리학을 통하여 한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성격을 예측하고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구들이 개발되기를 바란다.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김남선 (2002), 『평생교육방법론』, 도서출판 두남
- 김동완 (2000), 『사주명리학 완전정복』, 동학사
- 김배성 (2002), 『Top 만세력』, 창해
- \_\_\_\_\_ (2003), 『명리학 정론』, 창해
- \_\_\_\_\_ (2004), 『명리대경』, 명운당
- \_\_\_\_\_ (2004), 『사주심리치료학』, 창해
- \_\_\_\_\_ (2006), 『사주심리와 인간경영』, 창해
- \_\_\_\_\_ (2006), 『격국용신정의』, 청학출판사
- 김홍경 (1993), 『음양오행설의 연구』, 신지서원
- 노안영 외 (2003), 『성격심리학』, 학지사
- 심혜숙 외 (2005), 『성격유형과 삶의 양식』,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양원석 (2002), 『명리학개론』, 대유학당
- 어윤형 외 (1994), 『오행이 뭐지?』, 도서출판 세기
- 한국교총원격연수원 (2006), 『심리검사의 이해와 학생상담』
- 한동석 (1996),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 행림출판사

### 2. 학위논문

- 김종만 (2005), 『육신의 편중에 의한 성격특성 연구』, 경기대학교 국제문화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왕용 (1997), 『오행학설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소재학 (2005), 『음양오행설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용준 (2004), 『사주학의 역사와 격국용신의 변천과정 연구』, 경기대학교

국제문화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국용 (2003), 『성격특성의 예측을 위한 사주명리학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 기타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 (2008), 『성격의 재발견』, 부글북스

제롬 와그너 (2006), 『성격의 심리학 - 애니어그램』, 파라북스

Charles S. Carver (2005), 『성격의 심리학』, 학지사

Danial Goleman (2006), 『SQ 사회지능』, 웅진지식하우스

[www.naver.com](http://www.naver.com)(네이버)

[www.empas.com](http://www.empas.com)(엠포스)

[www.aatest.co.kr](http://www.aatest.co.kr)(한국선천적성검사연구소)

# **ABSTRACT**

## **The Effect of Distribution of Five Elements in Saju on Personality Formation**

**Yun-Sook Son**

**Major in Myongri Education**

**Korea International Culture University of Graduate. 2007**

**Advisor: Ki-Seung Kim**

Personality is the unique way in which a person thinks and acts, and such personality is exposed most vividly when the person is making relationships with other people in the society. This study, agreeing with the new theory 'Social Intelligence' by psychologist Danial Goleman, verified the formation of personality with the theme of 'the effect of distribution of five elements in Saju on personality formation' based on the five elements of Saju.

The advantage of this study is that the author paid attention to current personality tests based on self-reported survey that show decreased confidence rate and unexpected results due to many variables that exist. Theories of Myongri, with which various information about a person can be found through the date of one's birth, were utilized in this study. In

particular, relationship between the Five Elements and personality formation, the most fundamental theory of Eastern Philosophy and Myongri, was verified by formulating the two hypotheses as follows.

[Hypothesis I] is that 'the Five Elements of Saju will have an impact on personality formation.' The effect of strongly distributed element among the Five Elements on the person's personality formation was verified by comparison with the survey result.

[Hypothesis II] is that 'absent element among the Five Elements will have an impact on personality formation.' The effect of absent of most weakly distributed element among the Five Elements on the person's personality formation was verified by comparison with the survey result.

The experimental group consisted of 324 adults aged 20 through 59, residing in Seoul, Gyeonggi Province, or Chungcheong Province, and the survey was carried out since March until April 2008. The survey was composed of 25 questions about the Five Elements, two questions about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questionnaire for finding out general perspective on personality and Myongri. Three questions were related to the most strongly distributed element, two questions were related to the most weakly distributed element, and total of five questions were given to each element of the Five Elements wood, fire, earth, metal and water.

Survey questions were analyzed and both of the hypothesis was verified. The result showed that by analyzing the Five Elements of Saju, personality can be drawn using strongly and weakly distributed elements.

In the most strongly distributed element, percentage of personality

formation was different for each element, but each strongly distributed element showed higher percentage in personality formation than the rest of the elements, with 54.72% for wood, 61.97% for fire, 78.18% for earth, 68.52% for metal and 44.44% for water. In the most weakly distributed element, percentage of personality formation was different for each element, but each weakly distributed element showed higher percentage in personality formation than the rest of the elements, with 57.89% for wood, 68.57% for fire, 57.58% for earth, 85.19% for metal and 84.39% for water.

Therefore,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concluded as follows.

First, most strongly distributed element among the Five Elements of Saju was found to form the person's personality trait related to the presence of that element.

Second, most weakly distributed element among the Five Elements of Saju was found to form the person's personality trait related to the absence of that element.

Distribution of the Five Elements in Saju strongly influences the personality formation of a person, and thus the analysis with Saju can be a useful method of finding one's personality. Future society is looking for skilled citizens who not only contribute to the society by exhibiting their aptitudes and abilities but also shows leadership and desirable relationships with others.

Therefore, this study verified the usability of Myongri as a personality finding tool that provides basic information necessary for understanding one and helps one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future society and to build

desirable relationship with others. Using this study as a building stone, further studies must be continued so that a more accurate analysis can be done on diverse information such as aptitude, intelligence, and behavior pattern.

## 부 록

### <부록 1>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에서 철학(명리)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석사과정 학생 손연숙입니다.

본 설문지는 2007학년도 석사학위논문 ‘사주의 오행분포가 성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를 위한 것으로, 사주구조에서 나타나는 오행의 강약이 어떻게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성격은 한인간의 인성과 흥미는 물론 적성에까지 연계되어 있고 또한 가족관계 대인관계와 사회성까지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개개인의 본성적인 성격을 파악하여 보다 안정된 삶을 지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목적입니다.

다음의 자료는 익명성이 보장되며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08년 3월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철학(명리)교육전공 석사과정

연구자 : 손 연 숙

지도교수 : 김 기 승

이 메 일 : chy2281@hanmail.net



**I. 다음 문항 중 가장 적절한 항목에 √표를 해주세요.**

(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 ④대체로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					
1	항상 새로운 일을 생각하고 시작하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문화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감성적인 면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표현력 부족이 원인이 되어 인화력이 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4	책임감이 강하고 변화에 대하여 적응을 잘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외적으로 보여지는 면과 체면을 중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시작은 잘 하는데 뚜렷한 결과가 없는 경우가 잦다.	①	②	③	④ ⑤
7	다소 이기적이나 사람들을 이끌고 리드하기를 잘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삶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9	과거를 참고하여 일에 대한 판단을 하며 현실적인 결정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일을 기획하고 실천해 나가는 안목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11	사고력 부족이 원인이 되어 불안하고 대인관계에 두려움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12	자제력이 강하며 항상 뒷일을 생각하며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하고 과시하려는 기질이 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15	임기응변이 약하여 위기 대처 능력이 부족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모든 문제의 타협점을 찾아 잘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냉정해 보이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의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중요하지 않은 일에 자주 집착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뭔가 결정을 할 때 아주 많이 망설이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20	분명한 기준대로 행동하므로 과감한 면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정서가 메마르고 마음의 여유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22	누구와도 무난하게 지내며 믿음직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23	철학에 관심이 많고 패기있는 행동보다는 안정을 더 추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집중력이 부족하여 매우 산만한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애매모호한 것을 싫어하며 충동적일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 II. 출생연월일시를 기록하여 주시고 물음에 답해주세요.

1. 성별을 구분하여 주세요.

남자(        ), 여자(        )

2.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주세요. 생년월일은 직접 적어주시고 음력인지 양력인지를 꼭 표시해 주세요. 태어난 시간은 오전과 오후를 꼭 표시해 주세요.

\_\_\_\_\_년 \_\_\_\_\_월 \_\_\_\_\_일 (양, 음)\_\_\_\_\_시 \_\_\_\_\_분 (오전, 오후)

3. 본인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색을 골라주세요. (        )

①푸른색 계통 ②붉은색 계통 ③노란색 계통 ④흰색 ⑤검은색

4. 음양오행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        )

①전혀 모른다 ②들어본 적은 있다 ③조금 알고 있다 ④잘 알고 있다

5. 성격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가장 유사한 것을 골라주세요. (        )

- ① 성격은 선천적인 영향이 절대적일 것이다.
- ② 성격은 환경에 의한 후천적인 영향이 절대적일 것이다.
- ③ 성격은 선천적, 후천적 영향을 모두 받지만 선천적인 면이 더 강할 것이다.
- ④ 성격은 선천적, 후천적 영향을 모두 받지만 후천적인 면이 더 강할 것이다.
- ⑤ 성격은 선천적, 후천적 영향이 모두 균등하게 영향을 줄 것이다.

★ 선천적인 성격 -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성격

★ 후천적인 성격 - 태어난 이후에 주어진 환경에 의해 형성되어지는 성격

- ❶ 감사합니다 ❶ -

## <부록 2>

### 사주분석 사례

\* 여기서 강하게 자리잡은 오행은 15점 만점을 기준으로 분석  
없거나 약하게 자리잡은 오행은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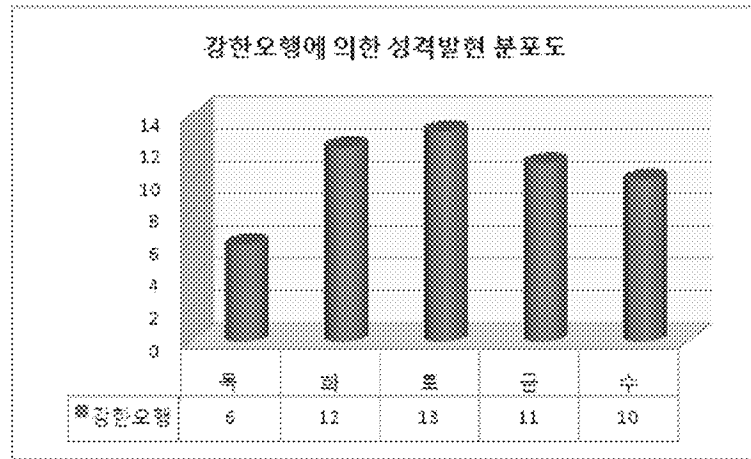
【 사례 I 】 - 강하게 자리 잡은 오행 : 토  
- 약하거나 부재오행 : 목

癸 己 丙 乙  
酉 亥 戌 巳

■ 위 사주명식은 기토일간이 월지에 뿌리를 내리고 목생화, 화생토로 생을 받아 토가 강하게 자리를 잡은 오행이다. 그러나 오행 수로 인하여 일간이 힘을 많이 소진시키고 있으므로 차별화된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는 못하며, 연간의 목오행이 가장 약하게 자리 잡은 오행으로 성격발현에 영향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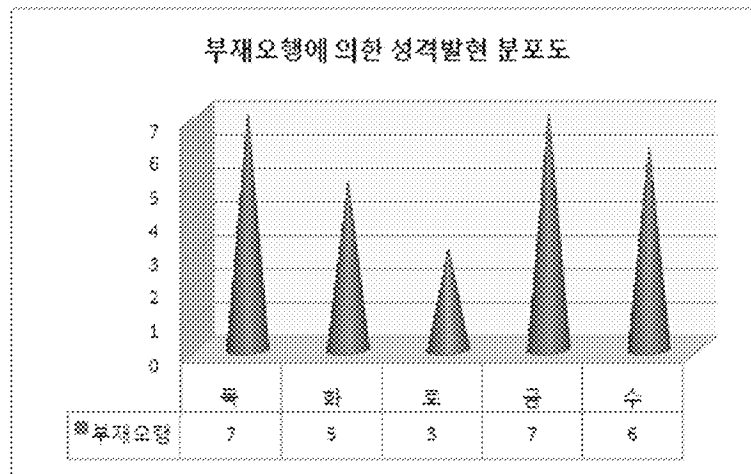
■ 강한 토오행에 의한 성격발현

- 누구와도 무난하게 지내며 믿음직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 모든 문제의 타협점을 찾아 잘 해결한다.
- 과거를 참고하여 일에 대한 판단을 하며 현실적인 결정을 한다.



■ 약한 목오행에 의한 성격발현

- 집중력이 부족하여 매우 산만한 경향이 있다.
- 사고력 부족이 원인이 되어 불안하고 대인관계에 두려움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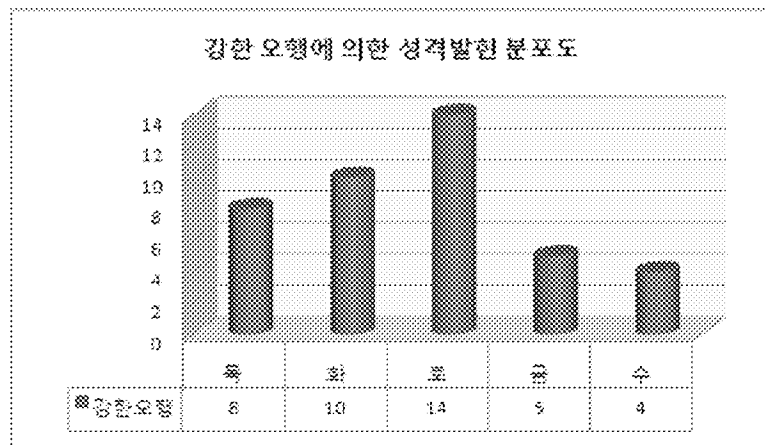


- 【 사례 Ⅱ】 - 강하게 자리 잡은 오행 : 토  
 - 약하거나 부재오행 : 수

乙 己 丁 丁  
 丑 丑 未 酉

■ 위 사주명식은 화생토를 받고 있는 기토 일간이 지지 3군데에 오행 토를 가진 토오행이 강하게 자리잡은 구조이다. 그러므로 다른 구조에 비하여 토오행의 기질이 강하게 발현되고 있다. 없는 오행인 수오행은 축토의 지장간에 자리를 잡고 있지만 사주 구조에서 토에 의한 극이 강한 구조이므로 수오행의 부재에 의한 영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토오행의 특징상 타협점을 찾아 해결하고자 하는 속성으로 현실에서는 무난하게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극을 하는 목 기운도 부족하고, 적응력을 좌우하는 수오행의 부재로 인한 단점이 작용할 수 있는 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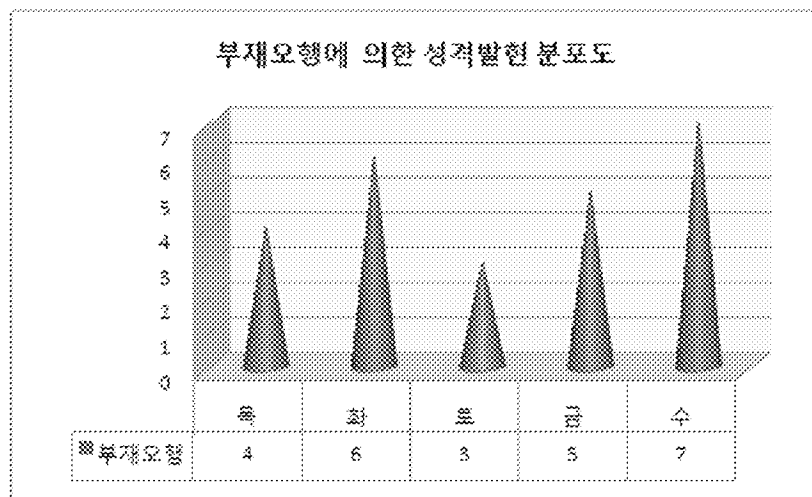
■ 강한 토오행에 의한 성격발현



- 누구와도 무난하게 지내며 믿음직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 모든 문제의 타협점을 찾아 잘 해결한다.
- 과거를 참고하여 일에 대한 판단을 하며 현실적인 결정을 한다.

■ 수오행의 부재에 의한 성격발현

- 임기응변이 약하여 위기 대처 능력이 부족한 편이다.
- 정서가 메마르고 마음의 여유가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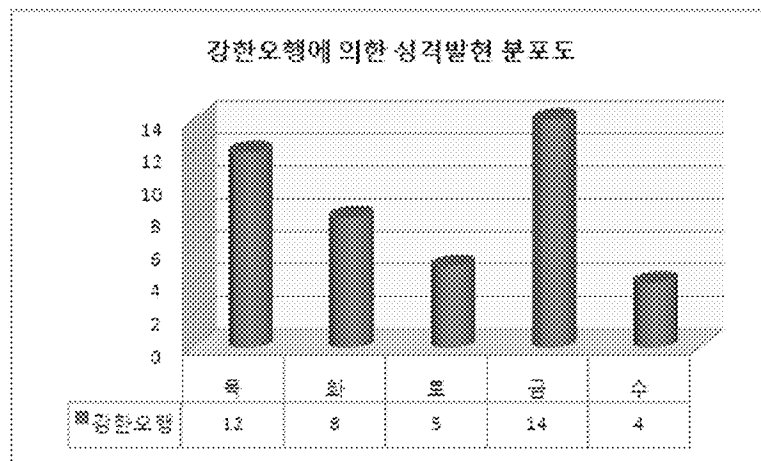


- 【 사례 Ⅲ】 - 강하게 자리 잡은 오행 : 금
- 약하거나 부재오행 : 수

甲 乙 己 庚  
申 酉 卯 戊

■ 위 사주명식은 일지를 차지한 금오행이 연간으로 투출하였으며, 지지에 신유술 방국을 이루어 금오행이 강해진 사주이다. 목오행도 월지를 차지하여 강하게 자리잡고 있으나 묘유충과 신유술 방국에 의하여 다소 약해진 구조가 되었다. 부재오행은 수오행과 화오행인데 목일간이 금오행을 극하고자하는 심리가 작용하고 묘술합의 영향으로 화오행의 부재보다는 수오행의 부재가 더 드러나는 사주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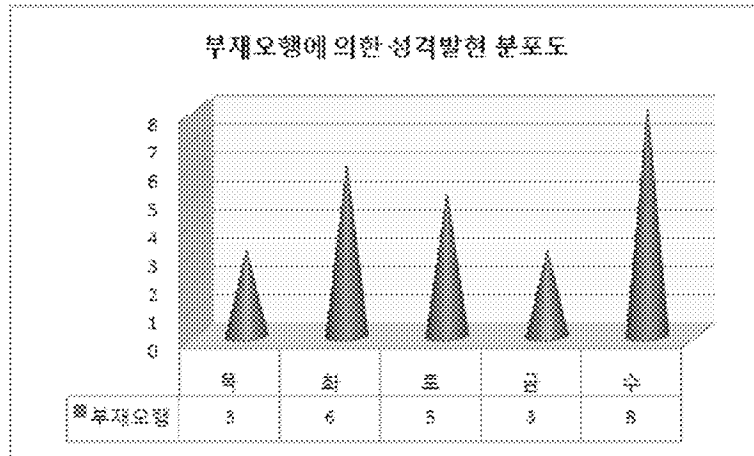
■ 강한 금오행에 의한 성격발현



- 분명한 기준으로 행동하므로 과감한 면이 있다.
- 냉정해 보이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의리가 있다.
- 자제력이 강하며 항상 뒷일을 생각하며 행동한다.

■ 수오행의 부재에 의한 성격발현

- 임기응변이 약하여 위기 대처 능력이 부족한 편이다.
- 정서가 메마르고 마음의 여유가 부족하다.



【 사례 IV】 - 강하게 자리 잡은 오행 : 수목화  
 - 약하거나 부재오행 : 금

壬 丁 壬 壬  
 寅 未 寅 午

■ 위 사주명식은 정화일간이 천간에 수오행으로 둘러싸여 분포하고 있지만 지지에 뿌리를 두지 못한 관계로 목오행과 화오행도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사주구조이다. 그러므로 이 사주는 수,목,화 세 오행이 서로 대등한 세력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오행이 부재된 사주구조이다. 그러나 가장 성격발현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오행은 수오행의 생을 받고 동시에 화오행을 생해주고 있는 월지의 목오행이 천간의 정임합의 기운과 함께하면서 다소 강하게 성격적이 특징을 이루고 있다.



■ 강한 수,목,화 오행에 의한 성격발현

수 - 책임감이 강하고 변화에 대하여 적응을 잘 한다.

- 일을 기획하고 실천해 나가는 안목이 좋다.

- 철학에 관심이 많고 패기있는 행동보다는 안정을 더 추구한다.

목 - 항상 새로운 일을 생각하고 시작하기를 좋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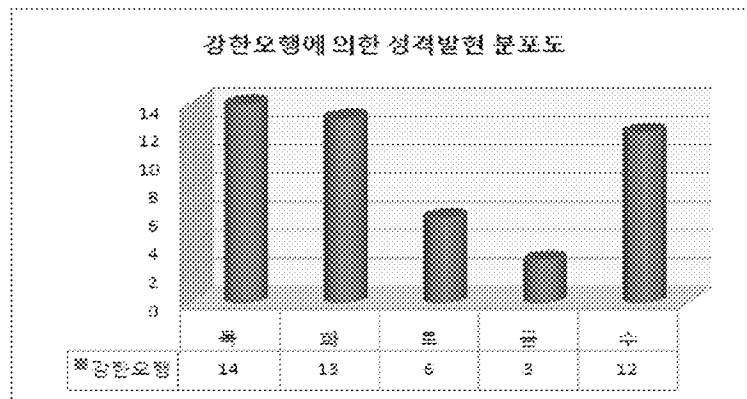
- 다소 이기적이나 사람들을 이끌고 리드하기를 잘 한다.

-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하고 과시하려는 기질이 강하다.

화 - 문화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감성적인 면이 많다.

- 외적으로 보여지는 면과 체면을 중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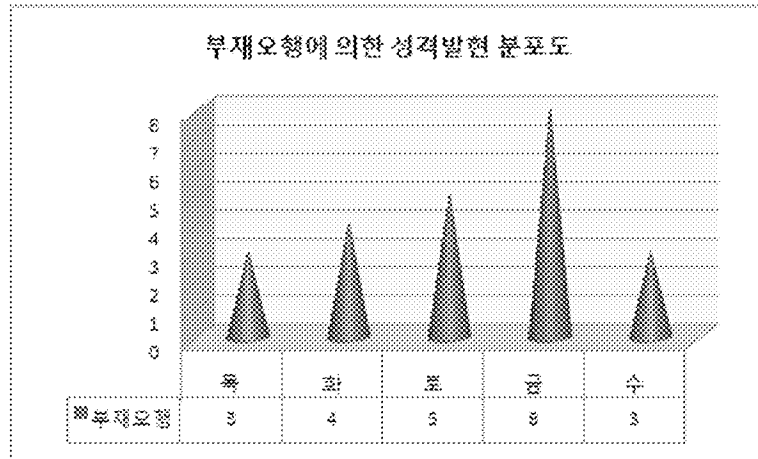
- 애매모호한 것을 싫어하며 충동적일 때가 많다.



■ 금오행의 부재에 의한 성격발현

- 뭔가 결정을 할 때 아주 많이 망설이게 된다.

- 시작은 잘 하는데 뚜렷한 결과가 없는 경우가 잦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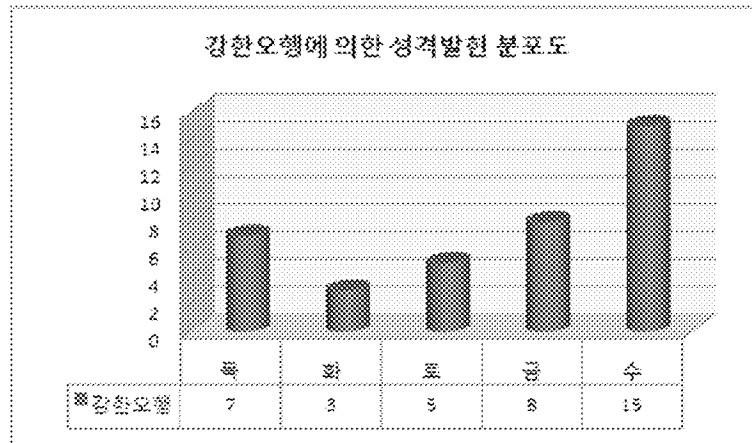
- 【 사례 V 】 - 강하게 자리 잡은 오행 : 수  
 - 약하거나 부재오행 : 화

庚 乙 壬 丁  
 辰 亥 子 亥

■ 위 사주명식은 월주를 장악한 수오행이 지지에 해자 국을 이루고 토오행 또한 수기운을 많이 가진 진토이므로 수오행이 가장 성격발현에 영향을 강하게 끼치고 있는 구조이다. 그러나 목, 금, 화, 토 오행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수오행에 의하여 극을 받고 있는 화오행이 가장 약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 강한 수오행에 의한 성격발현
- 책임감이 강하고 변화에 대하여 적응을 잘 한다.
  - 일을 기획하고 실천해 나가는 안목이 좋다.

- 철학에 관심이 많고 패기있는 행동보다는 안정을 더 추구한다.



#### ■ 약한 화오 행에 의한 성격발현

- 삶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다.
- 표현력 부족이 원인이 되어 인화력이 떨어진다.

